

朴通事新註新譯(九)*

李陸禾**

본 논문은 <朴通事新註新譯(一)>에서 <朴通事新註新譯(八)>¹⁾의 후속 작업으로, 제67단락부터 제78단락까지의 주석과 번역문을 신기로 한다. 본 논문의 研究背景과 譯註의 原則 그리고 參考 引用한 文獻에 관한 사항은 <朴通事新註新譯(一)>과 <朴通事新註新譯(二)>에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本文

第67話

那一日李指揮²⁾家裏打雙陸³⁾時節⁴⁾, 王千戶⁵⁾打⁶⁾背後來, 扯⁷⁾了我一把刀

* 이 연구는 2016년도 광주대학교 대학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光州大學校 國際言語文化學部 教授

1) 中國學論叢 第44輯(2014년)

2) 指揮：官名。明清沿元制于京城設五城兵馬司，置指揮、副指揮，掌坊巷有關治安之事，又明代各衛的指揮使亦簡稱指揮。

3) 打雙陸：又作“打馬”。一種遊戲。相傳由天竺傳入，在木制的盤子上設局，左右各有六路。用木頭做成椎形的子，叫做“馬”，黑白各十五枚。黑馬從左到右，白馬反之。以先走到對方為勝。(劉堅、江藍生 主編，《元語言詞典》，上海教育出版社，1998年，頁64)

4) 時節：時候。《七國春秋》卷中：「只見你每來時節，有一人從後門去了。」

5) 千戶：官名。元設百戶為“百戶之長”，隸屬於千戶，為世襲軍職。《元典章·兵部·整治軍兵》：「萬戶、千戶、百戶不肯奉公優恤軍人，專務剋取益己。」明·清·為低級軍官。

6) 打：自，從。《三國志平話》卷上：「劉備賞擊詔赦，辭了元帥，引本部下軍往任城縣東門，打跳河中過去，前去班村。」(許少峯 主編，《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1997年，頁210)

兒，他輸了的豬頭也不肯買，恨的⁸⁾他當不得⁹⁾。昨日那廝¹⁰⁾來我家裏來了，我特故裏¹¹⁾把酒灌的他爛醉了。眼花¹²⁾的不辨東西¹³⁾，不省人事，倒在床上打鼾睡。把他的小刀子拔¹⁴⁾了，又將筆來面皮上花¹⁵⁾了。他酒醒了，起來不覺¹⁶⁾，只¹⁷⁾那般去了，路上必定吃¹⁸⁾別人笑話。爲頭兒¹⁹⁾他瞞²⁰⁾別人來，臨了²¹⁾他也着²²⁾我道兒²³⁾。這的便是老實常在，脫空常敗。²⁴⁾

-
- 7) 扯：「揶」俗作扯，借作「掣」：一謂拉拽、牽扯；二謂躲閃。（顧學頤、王學奇，《元曲釋詞》卷一，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3年）
- 8) 恨的：喂地。發狠的樣子。《二刻拍案驚奇》四卷：「金憲左思右思，便一時不懷好意了，喂地一聲道：『一不做，二不休。』」（許少峯 主編，《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1997年，頁465）
- 9) 當不得：受不了，禁不住。
- 10) 廝：對人不尊敬，輕視的稱號。「那廝」就是對「歹人」的貶稱。
- 11) 特故裏：存心地，有意地。元·關漢卿《拜月亭》第四折：「我特故裏說的別，包彈遍，不嫌些蹬窩開弓，怎說他袒臂揮拳。」（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1817）
- 12) 花：模糊不清。
- 13) 東西：① 物件，什物。元 楊景賢《西遊記》一本三出：「原來是一個匪兒，裏面不知甚麼東西，且待我打開來看。」② 罵詞。人和動物都可以用，表示厭惡或喜愛。（許少峯 主編，《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1997年，頁293）按，此作物件，什物解。
- 14) 拔：拽，拉。
- 15) 花：應是「畫」。
- 16) 不覺：沒有意識到。元·王實甫《西廂記》五本二折：「自音容去後，不覺許時，仰敬之心，未嘗少怠。」（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144）
- 17) 只：就。《五燈會元》第三卷：「（麻谷寶徹禪師）師又問：『婆住在甚處？』婆曰：『只在這裏。』」
- 18) 吃：挨，遭。《三遂平妖傳》第六回：「我從來愛取笑人，昨日不合撩撥了這婦人，吃胡子打了一頓拳頭。」（許少峯 編，同前揭書，頁244）
- 19) 爲頭兒：從頭，開頭。元·孫仲章《勘頭巾》第三折：「爲頭兒對府尹說詳細，只教他欠身的立起銀交椅，驚殺了兩行公吏。」（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1926）
- 20) 瞞：欺騙，糊弄。《水滸全傳》二一回：「你這般道兒，只好瞞癩腿，老娘手裏說不過去。」（許少峯 主編，《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1997年，頁748）
- 21) 臨了：最後，到後來。《朱子語錄》第一三七卷：「及才議學校，便說不行，臨了又却只是詞賦好，是甚麼議論！」（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1169）
- 22) 着：中。
- 23) 道兒：圈套，手腕。
- 24) 老實常在，脫空常敗：辦事誠實的人終究不會吃虧，奸猾不實的人往往失敗。

【번역】

지난 번 이지휘(李指揮) 댁에서 쌍육(雙陸)²⁵⁾ 놀이를 할 때, 왕천호(王千戶)가 등 뒤에서 몰래 다가와 내 칼을 빼가는 장난을 쳤고,²⁶⁾ 또한 내기에 걸었던 돼지머리고기도 사려고 하지 않아서 이 자가 엄청 미웠다. 어제 이 작자가 우리 집에 왔기에, 내가 의도적으로 술을 잔뜩 먹여 취하게 만들었다. 사물을 분간 못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더니 침상에 쓰러져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있었다. 그의 칼을 풀어버리고, 또 붓을 가져와 면상에 먹칠을 해버렸다. 그는 술에서 깨어나서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가버렸는데 길에서 틀림없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처음에는 남을 속이고 장난을 쳤지만, 나중에 그는 내 꾀에 넘어갔다. 이것이 바로 「老實常在, 脫空常敗(성실한 사람은 결국은 손해를 보지 않고, 간교하고 착실하지 않는 사람은 늘 패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第68話

這孩兒幾個月也? 九個月了, 不到一生日裏²⁷⁾. 擻²⁸⁾了他膿帶²⁹⁾, 揩³⁰⁾的

25) 原文 '쌍육(雙陸)'에 대해 [네이버 지식백과]에 다음과 같은 설명을 볼 수 있다: 「정초나 겨울철에 많이 놀았던 주사위 놀이. 쌍육은 쌍육판(雙六板, 말판)과 서른 개의 말(馬) 그리고 두 개의 주사위(骰子)를 가지고 승부를 겨루는 놀이로 대한제국 말기까지 널리 행해졌다. 악삭(握槩)·쌍육(雙陸)·상륙(象陸, 이두식 표기)·상육이라고도 하였는데, 악삭은 길게 깎은 나무를 쥐고 놀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한국세시풍속사전, 국립박물관)

26) 原文 '扯了我一把刀兒'에 대해 '뒤흐로서 와 내 혼 즈르 칼을 싸이고'라는 諺解의 풀이를 볼 수 있다. '扯'는 '掙'의 俗字로 '掙(꼭다, 당기다)' 등의 의미를 가지는 글자다. 原文에는 '扯'와 상응되는 '把他的小刀子拔了的' '拔'字를 볼 수 있다. '拔'字 또한 '扯'字와 같이, 拽, 拉(당기다, 빼다)의 의미를 가지는 글자다. 原文의 '指揮'나 '千戶'는 武官이므로 상징적으로 허리에는 佩刀를 차고 있었을 것이다. 존엄의 상징인 칼(佩刀)을 장난으로 빼어가자 자존심이 상한 남자가 복수의 의미로 상대를 골려주는 장면으로 보인다.

27) 裏: 同"呢"、"哩".

28) 擻: 捏住鼻子, 用氣排出鼻涕.

29) 膿帶: 膿, 中醫指一種鼻病, 鼻涕多. 膿帶, 鼻涕.

干淨着。會爬麼？爬得³¹⁾。這奶子³²⁾也好不精細，眼脂兒³³⁾眼角裏流下來，不會揩來。我饋³⁴⁾你揩的干淨着。孩兒腕搭兒³⁵⁾腕搭兒。把那手³⁶⁾來提的高着。打光光³⁷⁾，打凹凹³⁸⁾，這孩兒亭亭³⁹⁾的麼？恰學立的⁴⁰⁾，腰兒軟，休弄⁴¹⁾他。不妨事⁴²⁾，我試一試。休跌⁴³⁾了孩兒，那一日吃⁴⁴⁾了一跌，額頭上跌破了，娘子⁴⁵⁾見

30) 揩：抹，拭。

31) 得：用在動詞後，表示可能，能夠。《紅樓夢》第六五回：「偷來的鑼鼓兒打不得。」

32) 奶子：乳母，奶媽。《初刻拍案驚奇》第二十卷：「一日，奶子包了小官人，同了養娘朝雲，往外邊耍子。」（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1336）

33) 眼脂兒：疑是眼膠。眼膠：眼屎，眼角黃垢。《何典》三回：「一面說，一面就在身邊挖出眼膠大三五粒丸藥來。」（許少峯 主編，《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1997年，頁1333）眼膠：眼器官的黃色分泌物，俗稱眼屎。（《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

34) 饋：介詞。給，替。

35) 腕搭兒：腕，握也。搭，古同“擲”，握持：「緊擲着鐵棒。」（百度 百科）搭：握，執。元 尚仲賢《單鞭奪槊》四折：「元來敬德手搭着竹節鋼鞭，與單雄信交戰。」（許少峯 主編，《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1997年，頁835）

36) 把那手：把，執；握住。‘把手’，握手；攜手。‘那’，襯字，無義。元 蕭德祥《殺狗勸夫》第三折：「（旦叫科云）是誰人叫門那聲？」（高文達 主編，《近代漢語詞典》，知識出版社，1982年，頁563）

37) 打光光：拍手。也作“拍巴掌”，“拍光光兒”，“打光兒”等。（李行健 主編，《河北方言詞匯編》，商務印書館，1995年，頁588）

38) 打凹凹：疑是“打哇哇”。嬰兒把手放在自己嘴上拍着，發出“哇哇哇”的聲音，叫做“打哇哇”。按，“凹(āo)”字也做“wā”音。

39) 亭亭：直立貌；獨立貌。姚美玲〈朴通事諺解中的元明口語與民俗〉（《西北民族研究》2011年 第四期）：「亭亭，是直立的意思。九十個月以後的小孩，要開始學習站立行走了。大人一手讓小孩站着，另一手護着小孩，稱為“亭亭”，以鍛鍊小孩的站立能力。… 唐孫思邈《備急千金要方》卷第五《少小嬰孺方上》：“凡兒生三十二日始變。…至二百五十六日八變，變且蒸，以知欲學語也。至二百八十八日九變，以亭亭然也。”小孩生下二百八十八日，即九個多月，是為九變，可以“亭亭然”了。“亭亭然”，至小孩站立的样子。由于方言的差異，“亭亭”又音變“能能”、“顛顛”、“楞楞”等，遊戲於是還稱為“打能能”、“打顛顛”、“打楞楞”等。」王學奇、王靜竹撰著，《宋金元明清曲辭通釋》（語文出版社，2002年，頁772）：「能能，嬰兒試立狀，常與“打”字連用，叫做“打能能”，第二個“能”字讀輕聲。（今北語仍這樣說，或呼作“能個兒”，北京口語讀陽平。魯東人稱此為“路路”，山西文水叫“擰擰”，浙江人呼曰“亭亭”，蓋鄉談方語，本無定字，各取土音而筆之于書，故寫法各異。）」

40) 立的：同‘立地’，即‘立着’。《張協壯元》十出：「甚人來投此處？早早開門，莫教奴家立地。」（許少峯 主編，《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1997年，頁690）

41) 弄：幹，做。

42) 不妨事：沒關係，不成問題。《水滸全傳》十一回：「林冲被打，掙扎不得，只叫道：‘不妨事，我有分辨處。’」（高文達 主編，《近代漢語詞典》，知識出版社，1982年，頁82）

43) 跌：失足摔倒。

44) 吃：猶跌。元 孟漢卿《魔合羅》第二折：「原來是不插控牢，靠着時呀的門開了，滴溜撲仰刺叉吃了一交。」（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244）

45) 娘子：① 稱妻。關漢卿《魯齋郎》三：「（旦與李四打悲科）（李四云）娘子，你怎麼到得這

了時⁴⁶⁾, 聒噪⁴⁷⁾難聽。你說的是。你好生⁴⁸⁾用心看守着, 不用心收拾⁴⁹⁾時⁵⁰⁾怪你。過了一生日時, 便那的步⁵¹⁾兒, 我也做饋他一對學行的綉鞋。

【번역】

甲某: 이 아이는 몇 개월이나 되었는가?

乳母: 아홉 달이고, 아직 한 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甲某: 콧물을 풀어주고, 깨끗이 닦아주시게. 길 줄은 아는가?

乳母: 잘 기어 다닙니다.

甲某: 자네는 좀 꼼꼼하지가 않는 모양이네! 눈곱⁵²⁾이 눈가에 흘러내리는 데도 닦아주지 않으니 말이네! 내가 널 깨끗이 닦아주마.⁵³⁾ 아이가

裏?)^② 尊稱青年或中年婦女。《魯齋郎》— 李四白「多謝了官人、娘子! 若不是官人、娘子, 那裏得我這性命來!」(藍立堃 編著, 《關漢卿戲曲詞典》, 四川人民出版社, 1993年, 頁191) 按, 此作尊稱解。

46) 時: 用作語氣間歇之詞, 猶現代漢語中“呵”或“啊”字。《拜月亭》—【金盞兒】: 「怕不問時, 權做弟兄: 問着後, 道做夫妻。」(顧學頴 王學奇, 同上揭書, 351頁)

47) 聒噪: 吵鬧。說話瑣碎, 聲音喧鬧, 令人煩躁。元·李好古《張生煮海》第一折: 「僧家清雅, 又無閒人聒噪, 堪可攻書。」

48) 好生: 十分, 非常。《元朝秘史》卷一: 「那三個人的顏色好生不善, 必害了你姓名。」

49) 收拾: 料理, 安排。元·缺名《衣襖車》一折: 「狄青收拾軍裝去了也, 凭着此人英雄, 必有輔國之志, 定亂之術。」

50) 時: 表示假定的語助詞。

51) 那步: 移步, 走動。那, “挪”也。

52) 原文‘眼脂兒’에 대한 언해는 ‘눈꾸’이다. 現代漢語에서 ‘눈곱’은 ‘眵’, ‘眼眵’라고 하고, 일부 지방에서는 ‘眼屎’ 또는 ‘眵目糊’라고 부르기도 한다. (眵: 眼瞼分泌出赤黃色液體。也叫眼眵。有的地區叫眼屎或眵目糊。)(《現代漢語詞典(修訂本)》, 商務印書館, 2001年) 原文‘眼脂兒’에 대한 설명은 찾을 수 없다. ‘眼脂兒’은 ‘眼眵(chi)兒’의 通假字로 보여 진다.

53) 原文의 ‘饋’는 介詞 ‘給’의 用법과 같다. 馮春田 著, 《近代漢語語法研究》(山東教育出版社, 2000年)에서는 다음과 같이 ‘饋’의 用법을 설명하고 있다: 「介詞 ‘給’는 ‘給與(주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에서 전환된 것이다. 介詞로 쓰이고 있는 ‘給’의 이러한 형식은 清代中期以後에는 보편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元代에서는 가끔 ‘歸’로 쓰이는 용례를 찾을 수 있고, 明代的 문헌에서는 ‘饋’로 쓰이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리고 明末清初에서는 ‘己’字가 쓰이는 경우도 찾을 수 있다. 介詞 ‘給’로 이루어지는 ‘給’字 構造의 用법은, 動詞 앞에서 또는 動詞 뒤에서 쓰이고 있으므로, 그 쓰임은 介詞 ‘給’의 쓰임과 일치한다. (介詞 ‘給’由表示‘給與’的動詞轉化而來。就‘給’這個形式而言, 清代中期以後普遍可見。但是在元代, 又偶有寫作‘歸’的例子; 在明代的文獻裏, 有的則寫作‘饋’; 而到明末清初, 還有的寫作‘己’。從語法上看, 由介詞‘給’一系的字組成的‘給’字結構, 既可以用在動詞前, 也可以用在動詞後, 跟介詞

쥘쥘도 하네!54) 손을 잡고 높이 올려볼까? 짹짹도 해봐라! 손을 입에 대고 ‘와와’ 하고 소리를 내 보거라!55) 아이는 똑바로 일어설 줄 아는가?

乳母: 막 일어서는 것을 배웠지만, 허리가 약하니 세우지 마세요!

甲某: 괜찮네! 어디 한 번 해볼까?

乳母: 아이를 넘어뜨리지 마세요! 지난번 넘어져서 이마가 깨진 것을 마님이 보시고 엄청 뭐라고 하셨습니다.

甲某: 자네 말이 맞네! 자네는 마음을 써서 잘 지켜보고 있게나. 잘 돌보지 않는다면 자네를 닷할 것일세. 한 돌이 지나면 걸음마를 할 것이니, 이 아이가 걸음마를 잘 배울 수 있도록 비단으로 수를 놓은 신발을 만들어줄 것이네.

第69話

姐姐56)來57), 咱們下盤棋58)。我生活59)忙, 不閑耍60)。你做甚麼生活? 我

“與”的用法一致。)》《朴通事》에서는 介詞 ‘給’字의 用例는 보이지 않고, ‘饋’字가 介詞 ‘給’字의 用법을 대신하고 있다.

54) 原文 ‘腕搭兒’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없고, ‘완나이질’이라는 諺解의 풀이를 볼 수 있다. 앞의 註 26)번에서처럼, ‘腕’이나 ‘搭’은 모두 ‘(몸건을) 쥐다’, ‘움켜잡다’ 등의 의미를 가지므로, 이에 앞뒤의 문맥으로 보아 아이들의 놀음인 우리말의 ‘쥘쥘’으로 번역하였다. 다음은 <朴通事諺解中的元明口語與民俗> (姚美玲, 《西北民族研究》, 2011年 第四期)의 글이다: 「腕搭兒腕搭兒는 영아들의 하나의 놀이이다. 오륙 개월 정도의 어린아이가 네 손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다시 오므리기를 반복하면, ‘彎撓’을 할 줄 안다’라고 말한다. ‘腕搭兒’는 ‘彎撓’의 ‘諧音’이다. (‘腕搭兒腕搭兒’, 是一種嬰兒遊戲。五六個月的小孩, 四個手指伸直後再彎曲, 能反復幾下, 稱爲會‘彎撓’了, “腕搭兒”是“彎撓”的諧音。)」

55) 原文 ‘打凹凹’에 대해 ‘와와이질’이라는 諺解의 설명을 볼 수 있다. ‘와와이질’에 대한 <李朝語辭典> (劉昌惇, 延世大出版社)에서는 ‘재롱의 하나’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앞의 주 29)번에서의 설명처럼, 어린아이가 입에 손을 대고 ‘와와’하고 소리를 지르는 놀이(재롱)로 보았다. 다음은 <朴通事諺解中的元明口語與民俗> (姚美玲, 《西北民族研究》, 2011年 第四期)의 글이다: 「‘打凹凹’的‘凹凹’與‘哇哇’同音。七八個月大小的嬰兒, 開始練習發聲, 把小手拍在嘴上, 發出‘哇哇’的聲音, 稱爲‘打哇哇’。《漢語方言大詞典》‘打哇哇’: “動詞, 小孩一邊發聲一邊將手拍打嘴角脣, 作哇哇聲。”」

56) 姐姐: 此作對平輩年輕婦女的稱號。【夾註】「漢俗呼婦曰姐姐。雖非弟妹, 如遇婦女, 可展斯

做袈裟裏⁶¹⁾。咱們人今日死的明日死的⁶²⁾不理會⁶³⁾的，做些好因緣⁶⁴⁾時不好？怪哉⁶⁵⁾！恰⁶⁶⁾十五歲的女孩兒，說這般作怪⁶⁷⁾的言語。怎麼這們⁶⁸⁾說？死不在老少。雖然⁶⁹⁾這般，你且⁷⁰⁾來麼⁷¹⁾，咱們下一盤。罷，罷，我忒⁷²⁾強時也不是，你敢⁷³⁾怪⁷⁴⁾我的模樣⁷⁵⁾，將過棋盤來，擺的滿着。咱休揀⁷⁶⁾着擺，只⁷⁷⁾好生⁷⁸⁾

須之敬者，亦曰姐姐，是尊之之謂。」

- 57) 來：置于句中或句末，作襯字或語尾助詞用，只起音節調劑作用。此用法，先秦以來即有之。清·劉淇《助字辨略》卷一：「來，語助辭。」《莊子·人間世》：「雖然，若必有以也，嘗以語我來！」…《三國演義》四九回：「本待一箭射死你來，顯得兩家失了和氣。」…‘來’并即‘矣’字，訓‘乎’者也…今語亦作‘哩’。‘里’來，古音一也。（王學奇·王靜竹 撰著，《宋金元明清曲辭通釋》，語文出版社，2002年，頁637）
- 58) 蟹棋：即“驚棋兒”。也作“慙棋兒”。棋類一種，以擠壓對方的棋子進退不得，無路可走為勝。《金瓶梅》八三回：「金蓮夜間暗約經濟賞月飲酒，和春梅同下驚棋兒。」《醒世因緣傳》五四：「漸漸的狄希陳專常往他家去，讓到他的臥房炕上，童奶奶合寄姐三個看牌，又教給狄希陳看骨牌，下別棋。」「別棋」即“慙棋”。（李申，《金瓶梅方言俗語匯釋》，（北京師範學院出版社，1992年，頁750）【夾註】「質問」云：碁子圓如蟹身上蓋，謂之蟹棋。」
- 59) 生活：工作，活兒。《水滸傳》第四一回：「這人姓侯名健，祖居洪都人氏，做得第一手裁縫…現在這無為軍城裏黃文炳家做生活。」
- 60) 閑耍：游玩，白相（吳語）。白仁甫《梧桐雨》二折：「寡人朝會無事，妃子學得霓裳羽衣舞，同往御園中沉香亭下，閑耍一番。」（許少峯 主編，《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1997年，頁1233）
- 61) 裏：助詞，用在句末，相當于“哩”、“呢”。
- 62) 的：用在並列的詞語後，表示“等等”、“之類”。猶言“甚麼的”。如：破銅爛鐵的，他揀來一大筐：老鄉們沏茶倒水的，熱情極了。（《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
- 63) 理會：理解；領會。宋蘇軾《答張嘉父》：「此書自有妙用，學者罕能理會。」（《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
- 64) 因緣：佛教語。佛教謂使事物生起、變化和壞滅的主要條件為因，輔助條件為緣。【夾註】『反譯名義』云：因謂先無其事而從彼生也，緣謂素有其分而從彼起也。又云：前緣相生，因也；現相助成，緣也。
- 65) 怪哉：感歎詞。因事出意外而表示驚異。
- 66) 恰：剛剛，恰纔。
- 67) 作怪：稀奇古怪。《宋元話本集·楊溫攔路虎傳》：「那楊三官人，不合去買了一卦，點出許多事來，言道作怪作怪。」（高文達 主編，《近代漢語詞典》，知識出版社，1982年，頁1030）
- 68) 這們：這麼，這個樣子。明·周履靖《錦箋記》第十一出：「這們一位官人，那一處不聞。」（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2369）
- 69) 雖然：即使。《東周列國志》第三八回：「且說周襄王避出王城，雖然望鄭國而行，心中未知鄭意好歹。」（許少峯 編，同上揭書，頁1775）
- 70) 且：此作“就”。關漢卿《單鞭奪槊》二：「茂公云：你且休往京師去，回營中救敬德去來。末云：喏且回營救敬德去來。」
- 71) 麼：疑問詞。或作“莫”，“沒”。《黃鶴樓》三【雙調新水令】白：「我認的你，有些面熟，你敢是魚兒張麼？」（顧學頤 王學奇，《元曲釋詞》卷二，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4年，頁474）
- 72) 忒：太，過于。王實甫《西廂記》一本二折：「夫人忒慮過，小生空妄想。」（《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

和勻着。老實⁷⁹擺着下，是我先擲⁸⁰。你怎麼先擲？咱比賽⁸¹。咱賭甚麼？不要賭甚麼，我輸了時，不敢違了姐姐的言語⁸²。姐姐你輸了時，也不要違了我的言語，這般時如何？不要聒舌⁸³。怎那般道，實說定了時不要改，先小人後君子，連忙⁸⁴擲。

【번역】

某甲：이보게 동생!⁸⁵ 우리 별기(整棋)⁸⁶ 한 판 뒤보세.

- 73) 敢：用作助動詞，猶管，有包管、準定、必然之意。《魯齋郎》一 【天下樂】：「那其間敢賣了城南金谷園。」（顧學頴、王學奇，《元曲釋詞》卷一，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3年，頁607）
- 74) 怪：怨恨，不滿情緒。《清平山堂話本快嘴李翠蓮記》：「今晚若不丈夫同睡，明日公婆若知，必然要怪，罷，罷，叫他上床睡罷。」（高文達 主編，《近代漢語詞典》，知識出版社，1982年，頁418）
- 75) 模樣：神情，形狀。《水滸全傳》十九回：「早間見王冲看王倫答應兒長模樣，他自便有些不平之氣，頻頻把眼瞅這王倫。」（許少峯 主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782）
- 76) 揀：挑選，選擇。
- 77) 只：就。《五燈會元》第三卷：「（麻谷寶徹禪師）師又問：‘婆住在甚處？’婆曰：‘只在這裏。’」（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2398）
- 78) 好生：此作認真，着着實實解。《龍圖耳錄》第八七回：「只要三角酒一完，咯噔的就打起哈起來了，飯也不能好生吃。」（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729）
- 79) 老實：真實，實實在在。清李漁《風箏誤》第十六出：「戚相公請老實些，上門的生意，不要錯過。」（許少峯 主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1117）
- 80) 擲：拋，仍。
- 81) 比賽：【夾註】「兩人下碁擲色兒，有點多者先下碁，小者後下碁。」
- 82) 言語：吩咐；命令。關漢卿《絳衣夢》第一折：「俺具外言語，着我來悔這門親事。」（《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
- 83) 聒舌：疑是“聒噪”。謂吵鬧、語言煩絮。又作“聒(guo)噪”、“聒吵”、“吵聒”、“刮躁”。重言之則作“聒聒噪噪”。（顧學頴、王學奇，《元曲釋詞》卷一，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3年，頁699）
- 84) 連忙：急忙，趕緊；立即，馬上。《西游記》第五九回：「菩薩知是悟空，連忙下座相迎。」
- 85) 原文‘姐姐’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언니’ 또는 ‘누나’이다. 白維國 編《金瓶梅詞典》(中華書局, 1991년)의 ‘姐姐’條에는 「① 稱妓女 ② 稱妻、妾 ③ 稱婢女、使女 ④ 稱晚一輩的女子 ⑤ 稱別人的女孩子 ⑥ 稱自己的女兒」의 풀이를 볼 수 있다. 本文의 내용으로 보아, 話者의 관계는 같은 나이또래 또는 약간의 나이차가 있는 관계로 보여 진다. 이에 ‘동생’이라는 호칭을 써서 구분하였다.
- 86) 原文‘整棋’는 ‘整棋다. 整棋라고 하고 ‘別棋’라고도 한다. 詞典에서 ‘整(개미 별)’字는 ‘鼈(자라 별)’字와 같이 쓰인다는 설명을 볼 수 있다. ‘整棋’에 대한 풀이는 앞에 주49)번에서처럼, ‘놀이의 하나로, 상대방의 말이 진격해 들어올 수가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면 이긴다.’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諺解는 ‘츄사인 호자로 풀이하고 있음을 볼 수

乙某: 내 일이 바빠 놀 겨름이 없어요.

甲某: 자네는 뭘 만들고 있는가?

乙某: 내 가사(袈裟)⁸⁷를 만들고 있어요. 사람이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니, 보시(布施)의 인연(因緣)이라도 쌓아두면 좋지 않겠습니까?

甲某: 괴이한 노릇이군! 이제 막 열다섯 살 먹은 처자가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군!

乙某: 왜 그렇게 말을 하시오! 죽음에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없는 법이요.

甲某: 비록 그러하기는 하지만 이리 와서, 우리 같이 한 판 뒤보세.

乙某: 알았소! 내가 지나치게 고집을 부리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소. 나의 이러한 모습에 불만인 것 같습니다. 기판(碁板)을 가져오시오. 말들을 채워 놓되 골라서 놓지 말고 잘 섞어서 열심히 잘 둡시다.⁸⁸ 내가 먼저 주사위를 던지겠습니다.

甲某: 왜 먼저 던진다는 것인가, 우리 주사위를 던져 선후를 정하세.

乙某: 우리 무슨 내기를 할까요?

甲某: 뭘 내기는 하지 말고, 내가 지면 동생의 말을 절대 어기지 않고, 동생이 지면 내말을 어기지 않는 것이네.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乙某: 잔소리 고만 하시고, 빨리 던지거나 하시오.⁸⁹

甲某: 왜 그리 말하는가? 정하면 바꾸지 않는 법이지. '先小人後君子(먼저 소인이 되고, 나중에 군자가 되어라)'⁹⁰라는 말도 있지.

있는데, 주사위를 던져 '蟹棋'판의 말을 움직이게 하는 놀이다.

87) 僧侶가 長衫 위에,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걸쳐 입는 법의(法衣).

88) 原文 '擺的滿着, 咱休揀着擺, 只好生和勻着'에 번역은 諺解 'ㄱ독이 호더 우리 굴럭여 버리디 말고 그저 ㄱ장 석기를 ㄱ르게 하여 고디식이 버리고 두쟈를 ㄱ거로 번역을 하였다. 改修本인 《朴通事新譯》에서는 삭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89) 原文 '比賽에 대해 諺解는 '징도림 ㅎ자'이다. 劉昌惇 저 《李朝語辭典》에서 '징도림 ㅎ자'를 '先手定하기'로 설명하고 있다. (延世大學校出版部, 2005年)

90) 原文 '先小人後君子'는 成語로 '처음에는 철저히 따지고 요구하지만 결정된 후에는 충실히 약속을 지킨다'의 의미를 가진다.

第70話

鄭舍⁹¹)你來,咱這草地裏學⁹²)摔跤⁹³)。咳,那姪⁹⁴)漢你那裏⁹⁵)抵當的我?休⁹⁶)問⁹⁷)他⁹⁸) ,咱兩個交手便見⁹⁹)。誰吃蘿蔔打噎¹⁰⁰) ,氣息臭的當不的。敢¹⁰¹)是這鏗漢吃來¹⁰²)。擺忙裏¹⁰³)說甚麼閑話?咱兩個摔,大家¹⁰⁴)休打臉,好好的摔。傍邊看摔跤¹⁰⁵)的人們道:咳,那姪金舍倒了也¹⁰⁶)。我不說來,你那裏

91) 舍:宋元時稱貴顯子弟爲“舍人”。也簡稱“舍”。《救風塵》一白:「自家鄭州人氏,周同知的孩兒周舍是也。」

92) 學:模倣,照搬。元·王曄《桃花女》三折:「(臘梅做醒科,云)父親也。乾坤良震。(周公云)怎麼你也學我。」(許少峯主編,《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1997年,頁1086)

93) 摔跤:角力,相搏,角抵。也作“摔交”。以摔倒對手獲勝的角力賽。當今比賽規定,兩人相抱角力,使對手身體除兩腳外的任何部分觸地者爲勝。(《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秦漢時期叫角抵,南北朝到南宋時期叫相撲。中國的相撲(中式摔跤),古稱素舞,由兩名大力士裸露上身,互相角力。晉代角抵出現了另一名稱“相撲”。到了唐代,相撲、角抵二名稱并行,明代以後,相撲多用摔跤這一名稱。(摘自百度)

94) 姪:新材矮小。

95) 那裏:與現代漢語反問之語氣詞“哪裏”同。有“怎麼”、“如何”之意。元·石德玉《秋胡戲妻》第二折:「多謝親家,我那裏吃得這酒!」

96) 休:副詞。用在動詞前,表示禁止或勸阻。可譯作“不要”、“別”。《張協狀元》四出:「先凶後吉,身在清霄外,君休慮。」

97) 問:管,顧。無名氏《秋景》(水仙子過折掛令):「正撞着各侶中三秋暮景,天涯千里途程,衰草長亭,流水孤村,問甚麼枕剩衾餘,烟冷燈昏。」

98) 他:不定指示詞。《西洋記演義》十七回:「一手拔開泥頭,伸起個奪錢伍,不管他酸話苦澀,只是一絲。」(許少峯主編,《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1997年,頁1086)

99) 見:知道;覺得。清·蒲松齡《聊齋志異·羅刹海市》:「歸養雙親,見君子孝。」(《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

100) 噎:噎,“堵噎”,“氣逆”。明·缺名《四賢記》第十一出:「衝冠怒髮,惱得人氣噎;切齒磨牙,這顛狂鹵莽,無端打人南衙。」(許少峯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2180) 噎,象聲詞。發出噝噝的聲音。按,吃蘿蔔等食物,消化而胃氣上逆曰“噎”。

101) 敢:必定,准定。《西廂記》三本楔子【賞花時】:「若得靈犀一點,敢醫病了病懸懸。」(卜鍵主編,《元曲百科大辭典》,學苑出版社,1991年,頁51)

102) 來:或作休、咪,音義同。用在句中或句尾的助詞,只起音節作用,無義,略同現代漢語中的啊、呢、拉、哩。《度柳翠》二【梁州第七】:「柳翠咪,少不得搜尋遍四大神州。」(顧學頌王學奇,《元曲釋詞》卷二,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4年,頁302、305)

103) 擺忙裏:緊要關頭。同“百忙裏”。元·缺名《朱砂担》第二折:「正待要展開脚忙移步,百忙裏腿轉筋甚脆證候!」(許少峯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40)

104) 大家:彼此,全都。金·元好問《後庭花破子》曲:「去年花不老,今年月又圓,莫教偏,和花和月,大家長少年。」(許少峯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371)

105) 摔跤:應是“摔交”,也作“摔交”。

106) 了也:時態助詞了。又作了來。脈古《竇娥冤》四竇天章白:「我別的這燈明了也,再看

迭¹⁰⁷)的我。常言道：“矮子打呵欠，氣兒不長”。

【번역】

金舍：鄭兄! 우리 이 풀밭에서 씨름¹⁰⁸)이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¹⁰⁹

鄭舍：아이고! 자네처럼 키 작은 사람이 날 어찌 당해낼 수 있는가?

金舍：별 걱정을 다하시네! 우리 둘이 겨루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지!

鄭舍：누가 무를 먹고 트림을 했지? 냄새가 견딜 수가 없군! 틀림없이 이 땅딸보가 한 짓일 것이야!

金舍：이 긴장되는 중요한 때에 무슨 한가로운 소리인가? 우리 모두 얼굴을 때리지 말고 멋지게 잘 겨루어 보세.¹¹⁰

(옆에서 씨름 구경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아! 땅딸보 김씨가 넘어졌다”라고 말하였다.)

鄭舍：내 말하지 않았는가? 자네가 어찌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말인가? 옛말에 “矮子打呵欠，氣兒不長(난장이가 하품을 하다 - 숨도 짧다)”¹¹¹)라는 말이 있다네!

幾種文卷。」(藍立煇 編著, 《關漢卿戲曲詞典》, 四川人民出版社, 1993年, 頁157)

107) 迭: 迭, “跌”字之誤寫。跌, 摔倒。

108) 原文의 ‘摔跤’는 앞의 註釋 82)번에서 알 수 있듯이 中國古代에서는 옷통을 벗고 힘을 겨룬다고 해서 ‘素舞’라고 하였고, 秦漢시기에서는 ‘角抵’, 南北朝에서 南宋時期는 ‘相撲’이라고 하였고, 明代에 이르러 지금의 ‘摔跤’라는 명칭을 썼음을 알 수 있다. 대체적으로 우리의 씨름과 비슷하나, 우리의 씨름은 대체적으로 다리에 살바를 감고 겨루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몽골의 씨름은 서로 떨어져서 양팔을 들고 기회를 보다가 상대방의 옷을 잡고 다리를 걸거나 던지기도 한다. 상대를 넘어뜨려서 팔꿈치와 무릎사이의 어떤 부위라도 땅에 닿게 하면 승부가 결정된다.

109) 原文의 ‘學’은 ‘모방하다’, ‘그대로하다’의 의미로도 쓰인다. 이에 ‘따라서 해보자’로 번역하였다. 전문적인 씨름꾼이 아니기 때문에 ‘시합하다’ 등의 어휘를 쓰지 않고, ‘모방하다’, ‘따라서 해보자’의 의미를 가지는 ‘學’字를 써서 ‘學摔跤’라고 한 것으로 보았다.

110) 原文 ‘休打臉’은 살바를 차고 시합을 하는 지금 우리의 씨름과는 달리 맨손으로 상대방의 몸을 잡아야 하므로 상대의 얼굴을 가격할 수 있음으로, 이에 ‘休打臉(얼굴은 때리지 말자)’라는 당부의 말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111) 原文의 ‘矮子打呵欠 - 氣兒不長’은 ‘歇後語’이다. ‘歇後語’는 속담이나 속어의 하나로 중국어 특유의 한 言語遊戲이다. ‘歇後語’는 앞과 뒤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앞부분은 제시어 로 수수께끼의 문제 같고, 뒷부분은 앞 제시어의 본뜻이다. 즉 수수께끼의 답안과

第71話

你到那裏？我只¹¹²到這裏來。雨住了麼？雨晴了也¹¹³。街¹¹⁴上有路¹¹⁵麼？那裏¹¹⁶見路，一剗¹¹⁷浣泥曲膝蓋深。那般時，你的靴子¹¹⁸怎麼乾？我慢慢兒沿着人家房檐底下，揀¹¹⁹路兒行來。騎馬的官人們一套兒衣裳都污了泥。官人那裏去？我別處有些緊勾當¹²⁰去。將我木棉¹²¹衣撒¹²²來穿，馬套上轡頭，這裏將來韁¹²³鞍子，把那尾子挽的牢着。

같다. 통상적으로 앞부분만 얘기하고 뒷부분은 말하지 않고 비워두고, 듣는 사람이 본의를 깨우치거나 알게 한다고 하여, 이에 '歇後(헐후: 뒤를 비우다)語'라고 한다. 예를 들어, '棋盤裏의卒子 - 只能進不能退'이라는 歇後語가 있다. 말하는 사람이 무슨 말 끝에 '棋盤裏의卒子(장기판의 졸이야)'까지만 말하고 그 뒷말은 말하지 않는다. 듣는 사람은 '只能進不能退(오직 앞으로 나가야하고 물러서지 못한다)'라는 본뜻을 추측해내는 그러한 경우다. 즉 우리의 '꿀 먹은 벌어리 - 속에 있는 말을 시원히 하지 못하고 딱딱거리기만 하다'와 유사하다. 다만 우리의 속담은, 중국어의 歇後語처럼 정해진 정답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112) 只：就。《盛世恒言》二一卷：「師父若教弟子三年嚴限，只在中原之地，度三千餘人，興俺道家。」(許少峯 主編，〈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1997年，頁1494)
- 113) 了也：時態助詞「了」。又作「了來」。脈古《竇娥冤》四 竇天章 白：「我別的這燈明了也，再看幾種文卷。」(藍立萸 編著，〈關漢卿戲曲詞典〉，四川人民出版社，1993年，頁157)
- 114) 街：城鎮中兩邊有房子的路。
- 115) 路：此作“通道”。可行之路。
- 116) 那裏：與現代漢語“哪裏”同。有“怎麼”，“如何”之意，但比之“怎麼”語氣却強。元·石德玉《秋胡戲妻》第二折：「多謝親家，我那裏吃得這酒！」
- 117) 一剗：一片，一色。元·王擘《桃花女》第四折：「到這東南角上打一望，只見茫茫蕩蕩，一剗都是荊榛草莽。」(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2190)
- 118) 靴子：靴子是帮子略呈筒狀高到踝子骨以上的鞋。靴原為北方遊牧民族所穿，又稱馬靴和高筒靴。(摘自 百度)
- 119) 揀：挑選，選擇。
- 120) 勾當：事情。元缺名《劉弘嫁婢》二折：「一個婚姻，一個社葬，咱將着那金子銀子，那裏尋這般好勾當做出來。」(許少峯 主編，〈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1997年，頁403)
- 121) 木棉：即“草綿”。通稱“棉花”。
- 122) 衣撒：曳撒(yì sǎn)，讀法源自蒙古語，為“一色(shǎ)”變音，來自蒙語“質孫(jisum)”，明代服飾之一。曳撒又稱“衣色”，“一色”，“一撒”，發音承襲自元制。(摘自 百度)
- 123) 韁：此作動詞，把鞍轡等套在馬身上。

【번역】

甲某：어디 가십니까?

乙某：이곳에 오는 길일세.

乙某：비는 그쳤습니까?

甲某：비가 그쳤다네!

乙某：길은 보이거나 하나요?

甲某：어찌 보이겠는가? 길은 온통 진흙 밟이고 무릎까지 빠진다네!

乙某：그런데도 어르신의 장화는 어째서 깨끗합니까?

甲某：난 조심조심 처마 밑을 따라 마른 길만을 골라 왔다네.

乙某：말을 타고 다니는 나리들의 옷도 흙탕물을 온통 뒤집어썼습니다. 어르신은 어딜 가십니까?

甲某：난 다른 곳에 급한 일이 있어 가야하네. 내 목면(木綿) 이삭(衣撒)¹²⁴을 가져오시게. 말에 말갈레를 끼워 이리로 끌어다가 길마를 엮고, 꼬리를 단단히 묶게나.

第72話

你今年怎麼京城不會¹²⁵去? 路上盤纏¹²⁶艱難怎麼去? 我也沒甚麼干的勾當¹²⁷, 又少些盤纏¹²⁸, 不會去的¹²⁹。年時¹³⁰牢子們走的¹³¹, 你見¹³²

124) 原文 '衣撒'은 앞의 註釋 111)번에서처럼 '一撒', '衣色' 등의 通假字로 보인다. 즉 '曳撒'이라는 옷이다. 諺解에서는 '이삭디녕(이삭직령)'으로 설명되어 있다. '曳撒'은 '腰線襖子'의 일종으로 元에서 유래한 것으로 활동이 편한 용복으로 착용된 것이 평상복으로 발전한 것이다. 허리부분에 가로주름이 많았고 치마부분에 잔주름이 많이 잡혀있는 옷이다.

125) 不會：未曾。與現代漢語“沒有”同。

126) 盤纏：路費，旅費。明·高則盛《琵琶記》第三二出：「路途多勞倦，行行甚時近，未到洛陽城，盤纏多使盡。」(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1403)

127) 勾當：事情。元缺名《劉弘嫁婢》二折：「一個婚姻，一個社葬，咱將着那金子銀子，那裏尋這般好勾當做出來。」(許少峯 主編，《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1997年，頁403)

128) 盤纏：費用，日常用度。《兒女團圓》二折：「你將這錢鈔，家中做盤纏去。」(龍潛庵 編著，

來¹³³)麼? 我不會看來¹³⁴)， 在那裏走來? 六十里店裏走。上位¹³⁵)在西湖景涼殿¹³⁶)裏坐的¹³⁷)看。年時誰先走來? 一個細長身子兒， 小團欒¹³⁸)面皮¹³⁹)的漢兒人， 小名喚許瘦兒， 他先走來。是誰家的牢子? 跟張總兵¹⁴⁰)使的牢子。上位¹⁴¹)賞了一百錠鈔¹⁴²)， 兩表裏¹⁴³)段子。不同小可¹⁴⁴)， 萬千人裏頭， 第一個

《宋元語言詞典》，上海辭書出版社 1985年，頁827)

- 129) 到的：“的”，同“得”，動詞詞尾，表示完成。“到的即”到得”。《三戰呂布》一折：「爭奈俺手下兵微將寡，怎生破的呂布?」（龍濟庵 編著，《宋元語言詞典》，上海辭書出版社，1985年，頁550)
- 130) 年時：當年，往昔。去年。金·董解元《西廂記》七券：「從別後，臉兒清秀，比是年時瘦。」（許少峯 主編，《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1997年，頁820)
- 131) 牢子：王學奇·王靜竹 撰著，《宋金元明清曲辭通釋》：「… 二上各例，可分四解：一、二例，牢子指獄卒，即看管犯人的丁役。《水滸傳》第二十七回：「因此節級、牢子都不要他一文錢，倒把酒食與他吃。」亦其例也。亦呼作“獄子”，… 例三，泛指一般衙役。如明代陳鐸的小令《北越調·天淨沙》有題曰“牢子”云：“當官侍立公堂，歸家欺侮街坊，仗勢渾如虎狼。”可以見他們的凶惡。例四指王府勳戚的手下人，… 例五指大內門軍。明·方以智《通雅·稱謂》：“鑊子，下役之稱……智按：今王府勳戚稱手下曰牢子，大內門軍亦曰牢子，或牢、鑊音轉，而訛作此字。」（語文出版社，2002年，頁647）【夾註】「牢，獄名，繫重囚之所。牢子，守獄之卒也。『南村輟耕錄』云：牢子走者，元時，每歲一試之，名曰放走。亦名貴由赤，俗謂快行是也。以脚力便捷者膺上賞，故監役之官，齊其名數而約之以繩，使無後先參差之爭，然後去繩放行。在大都，則自河西務起程。若上都，則自泥河兒起程。越三時，走一百八十里，直抵御前，俯伏呼萬歲。先至者賜銀一餅，餘者賜段匹有差。」
- 132) 見：此作“聽”。元·李文尉《燕青博魚》二折：「這幾年我不曾來你說有什麼兄弟，今日可的就認的是你兄弟。」（許少峯 主編，《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1997年，頁544)
- 133) 來：此作時態助詞“過”。關漢卿《雙赴夢》四「敘故舊，廝問候，想那說來的前咒，桃園中宰白馬烏牛。」（藍立莫 編著，《關漢卿戲曲詞典》，四川人民出版社，1993年，頁153)
- 134) 來：此作語助詞，略同現代漢語中的啊、呢、啦、哩。
- 135) 上位：上司，上級。此指稱皇帝。明·王世貞《鳴鳳記》第七出：「老太師還不知，上位正要罷兵，見你的和戎兵，不勝歡喜。」（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1641)
- 136) 西湖景：指大都西郊玉泉山下西湖（今頤和園內仍有西湖）。元文宗在西湖邊造大承天護聖寺，有涼殿供皇帝休息。（摘自 百度）
- 137) 坐的：即“坐地”。坐着，坐定。
- 138) 團欒：圓貌。清納蘭性德《菩薩蠻》詞：「問君何事輕離別，一年能幾團欒月。」
- 139) 面皮：面顏，臉面。明薛近兗《綉襦記》三出：「人稱大叔真豪氣，長多少面皮，壯多少面皮。」（許少峯 主編，《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1997年，頁772)
- 140) 總兵：官名。明初，鎮守邊區的統兵官有總兵和副總兵，無定員。總兵官本為差遣的名稱，無品級，遇有戰事，總兵佩將印出戰，事畢繳還，後漸成常駐武官。
- 141) 上位：此指稱皇帝。
- 142) 錠鈔：【夾註】「『質問』云：每一張鈔謂之一錠。又云：五貫寶鈔謂之一錠。今按：俗謂銀一餅亦謂之一錠，元寶則五十兩為一錠。」
- 143) 表裏：面料和襯裏，泛指衣料。《西遊記》第五九：「我這裏人家，十年拜求一度，四猪四羊，花紅表裏，異時香果，鷄鵝美酒，沐浴虔誠，拜他仙山，請他出洞。」（許少峯 編，《近代漢語

走, 得佸多¹⁴⁵⁾賞賜. 休道是佸多鈔錠, 段子, 皇帝人家的一條線, 也怎能勾得?
可知道¹⁴⁶⁾裏, 福不至, 萬事難.

【번역】

甲某 : 자네는 올해에는 어찌하여 京城(경성)에 가지 않았는가?

乙某 : 노자가 궁하니 어찌 가겠는가? 자네는 왜 또 올라가지 않았는가?

甲某 : 나도 뭐 해야 할 일도 없고, 노자도 좀 부족하여 가질 않았네.

乙某 : 작년엔 뇌자(牢子)¹⁴⁷⁾들의 달리기 시합을 자네는 보았는가?¹⁴⁸⁾

甲某 : 보질 못했는데, 어디서 달리던가?

乙某 : 六十里店에서 출발하였고, 皇帝께서는 西湖의 景涼殿에서 좌정하시어
구경을 하시더군.

甲某 : 작년에는 누가 1등을 했는가?

大詞典》, 中華書局, 2008年, 頁111) 按, “一表里”, 就是一套服裝的裏外布料。

144) 不同小可 : 應是“非同小可”。非同小可, 不同尋常. 指超過一般情況. 白仁甫 《牆頭馬上》一折 : 「慙愧! 這一場喜事, 非同小可, 只等的天晚, 却來赴約也。」(許少峯 主編, 《近代漢語詞典》, 團結出版社, 1997年, 頁346)

145) 佸多 : 佸, 這麼; 那麼. 這麼多, 如此之多. 元·缺名 《舉案齊眉》第三折 : 「嬾嬾去了也, 虧他送了俺佸多東西。」(許少峯 編, 《近代漢語大詞典》, 中華書局, 2008年, 頁1599)

146) 可知道 : ① 當然. 關漢卿 《蝴蝶夢》三 : 「張千云 : 兀那婆子, 你要喜歡麼? (旦) : 我可知要歡喜裏!」 ② 怪不得, 難怪. 《兩世姻緣》四白 : 「元來如此, 可知書臯他前日見面生情也。」(劉堅 江藍生 主編, 《元語言詞典》, 上海教育出版社, 1998年, 頁156) 按, 此有“當然之意”。

147) 原文 ‘牢子’는 ‘夾註’에서처럼 ‘獄을 지키는 獄卒’이지만, 그러나 앞의 註釋 120)번에서처럼 당시에는 官衙의 ‘衙役’ 또는 勳戚大臣들의 手下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본문에서의 ‘跟張總兵使의 牢子’라는 말이 있는데, ‘總兵’은 註釋 129)번에서처럼 한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統兵官’의 비슬어 이름이다. 이에 “跟張總兵使의 牢子”를 ‘張總兵의 麾下’로 번역을 하였다.

148) 註釋 120)번 ‘夾註’는 元代 陶宗儀가 지은 ‘南村輟耕錄’을 인용하여 당시 성행했던 ‘달리기’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지금의 ‘마라톤’에 해당하는 달리는 당시에는 ‘放走’, ‘快行’ 또는 ‘貴由赤(몽골어로 달리다의 뜻이다)’라고 불렀다. 大都에서는 河西務(지금의 天津市 武清區)에서 달리기의 기점이고, 上都에서는 ‘泥河兒’가 기점인데, 달리는 구간의 거리는 一百八十里(지금의 약 67.6킬로미터)이고, 소요시간은 三時(지금의 6시간)로 지금의 마라톤 구간의 배에 해당된다. 一百八十里길을 달려 御前에 도착하면 앞뒤로 ‘萬歲’하고 구호를 외친 1등에게는 銀一錠을 상으로 주고, 나머지는 등수에 따라 각각 비단을 주었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乙某：키 크고 얼굴이 좀 둥그스름하게 생긴 漢族인데, 별명이 許瘦兒(허수아)라고 하는 사람이네.

甲某：누구의 牢子라고 하던가?

乙某：張總兵 휘하의 뇌자(牢子)일세. 황제께서는 상으로 백 정(錠)과 비단 두 벌을 하사하시었네.

甲某：대단하군! 수많은 사람가운데 1등으로 달려서 그렇게나 많은 상을 하사받다니 말일세!

乙某：그렇게나 많은 상금과 비단은 고사하고, 황실의 실오라기 한 올 이라도 어찌 가질 수가 있다는 말인가?

甲某：암 그렇고말고, ‘福不至, 萬事難(복이 오지 않으면, 모든 일이 어렵다)’라고 했네!

第73話¹⁴⁹⁾

今日幾? 今日臘月¹⁵⁰⁾二十五日。咳, 却早¹⁵¹⁾年節下¹⁵²⁾也。却沒一件新衣裳¹⁵³⁾, 怎麼好, 將曆頭¹⁵⁴⁾我來看。這月是大盡¹⁵⁵⁾那小盡? 這的大盡。也有五

149) 年節：謂陰曆正月初一。今稱春節。宋孟元老《東京夢華錄·正月》：「正月一日年節，開封府放關補三日。」

150) 臘月：農曆十二月。【夾註】「臘，無定日，冬至後第二戌日是也。夏曰嘉平，殷曰清祀，周曰大禘，秦曰臘。漢仍之。臘者，獵也。因獵取獸，以祭先祖。又臘者，接也，新故交接大祭，以報功也。」

151) 却早：已經。《西廂記》三本二折〔煞尾〕白：「謝天地，却早日下去也！却早發播也！呀，却早撞鐘也。」(劉堅、江藍生 主編，《元語言詞典》，上海教育出版社，1998年，頁257)

152) 下：用在名詞後邊(一)表示在裏面，如“心下”、“言下”。(二)表示當某個時節，如“節下”、“年下”。

153) 衣裳：古時上曰衣，下曰裳(古代指裙子)。《詩經·邶風·綠衣》：「綠衣黃裳。」《毛傳》：「上曰衣，下曰裳。」古人最早下身穿的是一種類似裙子一樣的“裳”。“裳”字也寫作“常”。

154) 曆頭：即“曆書”。《水滸全傳》第二四回：「有個施主官人與我一套送終衣料，特來借曆頭，央及娘子與老身揀個好日，去請個裁縫來做。」(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1138)

155) 大盡：農曆的大月。也指這月的最後一天。《古尊宿語錄》第三八卷：「師云：‘停真罷想着。’云：‘與麼則大盡三十日，小盡二十九也。’」(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

個日頭¹⁵⁶)裏。五、六個婦人們坐的縫時¹⁵⁷)，怎麼做不出一套衣裳來？趕也¹⁵⁸)趕上做裏。今日是乙丑日斗星日。且慢着，我看，角安，亢食，氐房益，斗美，牛休，虛得糧，壁翼護財，奎得寶，婁增，軫久，鬼迎祥。今日好日頭，斗星日得飲食的日頭，好裁衣¹⁵⁹)。將出那段子來裁。這明綠通袖¹⁶⁰)膝欄¹⁶¹)綉的做帖裏¹⁶²)，這深肉紅¹⁶³)界地¹⁶⁴)穿花鳳紵絲¹⁶⁵)做比甲¹⁶⁶)，這鷄冠紅綉四花¹⁶⁷)做搭護¹⁶⁸)，

局，2008年，頁371)

- 156) 日頭：日子。《董西廂》卷一：「沒一個日頭兒心放開，沒一個時辰兒不掛念。」(龍潛庵 編著，《宋元語言詞典》，上海辭書出版社 1985年，頁146)
- 157) 時：表示假定的語助詞。與“呵”同。語助辭，相當於“時”，多用在假設分句後。按：類似現代漢語的“(要是)…的話”。(拙稿，〈老乞大語彙考(2)〉，中國學論叢，25輯，2009年)。《黃鶴樓》一折白：「玄德公也，若你不來時，萬事罷論；若來呵，便挿翅也飛不過大江去。」用在條件復句的前一分句末尾，表示假設、原因、條件等。元曲選《謝天香》四折：「若是這般呵，功名成就多時了。」
- 158) 也：香坂順一著，《水滸詞匯研究》(虛詞部分)：「也」又有承接假定條件，引出陳述的作用，…這就是所謂“也”的連接作用。『殺了我也不賣！(第四回)』(文津出版社，1992年，頁270)
- 159) 今日是乙丑日斗星日，且慢着，我看，角安…斗星日得飲食的日頭，好裁衣：按，《文殊師利菩薩及諸仙所說吉凶時日善惡宿曜經》(卷下)：「裁縫衣裳服用宿法：昴必火燒，畢隸事務，觜必鼠咬，參必逢厄，井必相分，鬼必吉祥，柳必棄失，星必喪服，張必官奪，翼必獲財，軫必恆久，角必安穩，亢得美食，氐必睹友，房必益衣，心必盜賊，尾必壞爛，箕必得病，斗得美味，女必得疾，虛必得糧，危必毒厄，室必水厄，壁必獲財，奎必獲寶，婁必增衣，胃必減衣。虛、奎、鬼、井、婁、畢、軫、角、亢、氐、房、翼、斗、壁，此以上宿，可裁縫衣，著衣裳，並大吉(餘並失)。』
- 160) 通袖：長袖。《金瓶梅詞話》第四十回：「到次日，西文慶衙門中回來，開了箱櫃，打開出南邊織造的夾板羅殺尺頭來。使小廝叫將趙裁來，每人做件粧花通袖袍兒，一套遍地錦衣服，一套粧花衣服。」
- 161) 膝欄：即“膝襪”。蟒服。明代的一種制服。《明史·輿服志三》：「永樂以後，宦官在帝左右，必蟒服……膝襪，亦如曳撒，上有蟒補，當膝處橫織細雲蟒，蓋南郊及山陵屨從便於乘馬也。」
- 162) 帖裏：又寫作貼裏，天益、天翼、綴翼、襪翼。其衆多的異名，可知其當為音譯。帖裏之名乃是蒙古語“Terliq”之音譯，“Terliq”最初的意義，李恩生認為不詳(Lee eun joo, 『study on the name of cheollik』《貼裏名稱研究》)。而據克寶海、楊玲所言，蒙古語“Terliq”意為絲、絲織品、綢緞，後泛指絲麻織織。又據李莉莎所言，則“Terliq”為斷腰袍的蒙古語稱呼，在康熙五十六年成書的二十一卷本《辭典》中解釋為“綢緞做的帶褶長袍”。現代蒙古語中貼裏仍為“袍服”之意。(鳳簾珍珠帽，龍盤錦綉(二)，摘自“百度”)【夾註】「元時好着此衣，前後具胸背，又連肩而通袖之脊，至袖口為紋，當膝周圍亦為紋如欄干，然織成段匹為衣者有之，或皮或帛，用絲線周遭回曲為緣，如花樣，刺為草樹、禽獸、山川、宮殿之紋於其內，備極奇巧，皆用團領着之，其直甚高。達達之俗，今亦猶然。」
- 163) 肉紅：紅顏色的一種，類似肌肉的淡紅色。
- 164) 界地：即“襯裏”，“襯底”。縫制衣服時襯在裏面的布。
- 165) 紵絲：就是“緞子”。《明代的絲綢衣料》：「宋人吳自牧《夢梁錄》卷十八：「紵絲染絲所織，諸顏色有織金、閃褐、間道等類。」又《吳縣志》卷五十一稱：「紵絲俗名緞，因造緞字。」
- 166) 比甲：古時一種便于騎射的服裝。類似後來的背心。《元史·后妃傳一·世祖后察必》：

這鴉青¹⁶⁹織金打蟒龍的做上蓋¹⁷⁰。都裁了也，如今便下手縫。一個不會針線¹⁷¹的女孩兒，着¹⁷²他搓¹⁷³各色線。且將那水線來都引了着。你來將那腰線包¹⁷⁴兒來，揀着十分細的大紅腰線上¹⁷⁵。紐子¹⁷⁶不要底似¹⁷⁷大恰好着，大時看的蠢塗了。又一個女兒繖¹⁷⁸手帕着，繖的細勻¹⁷⁹着，三、四十個手帕也遞不勻。

「后又制一衣，前有裳無衽，後長倍於前，亦無領袖，綴以兩襍，名曰比甲，以便弓馬，時皆仿之。」【夾註】「胸背，凡於紗羅段帛之上，以綵絨織胸背之紋，裁成衣服者也。（中略）衣之無袖，對襟為裳積者曰“比甲”，即本國語지털리。婦女亦依此制為短襖着之，亦曰“比甲”，通稱搭護。」

167) 四花：也作“四華”。法華六瑞中，雨華瑞之四花，即曼陀羅華摩訶曼陀羅華曼殊沙華摩訶曼殊沙華。一說四花為分陀利（白蓮華）优鉢羅（青蓮華）鉢特摩（紅蓮華）拘物投（黃蓮華）。

168) 搭護：亦作“答忽”。元代蒙古人衣服中有一種皮襖。蒙古語叫“daqu”。答忽有兩種，一種是毛向外的羊皮答忽，對襟無領，在後下擺處有開衩，主要是牧民在冬季穿在長袍外面；另一種是毛向裏，有面有裏的答忽，主要是富貴之家天冷是服之。據史料分析（《中國全史（14）》），答忽有兩種式樣。一種是《元史·輿服志》中的“襍子答忽”即有扣襍的答忽。《元史語解》卷二四名物門：“達呼，皮端罩也。”卷七十八作“答忽。”這是無袖皮背心之屬。即沒有雙袖的上衣。《事物紀原》卷三“半臂”：“今背子也。江淮之間，或曰綽子。今俗名搭護。”【夾註】「《事物紀原》云：隋內官多服半臂，餘皆長袖。唐高祖減其袖，謂之半臂，即今背子也。江淮間或曰綽子，庶人競服之。今俗呼為搭護，더그레。」

169) 鴉青：鴉羽的顏色。即黑而帶有紫綠光的顏色。暗青色。

170) 上蓋：外衣；罩衫。元無名氏《神奴兒》第一折：「大嫂，揀個有顏色的段子，與孩兒做領上蓋穿。」

171) 針線：此作縫紉刺繡等工作。唐·白居易《秋霽》詩：「獨對多病妻，不能理針線。」

172) 着：教，命。元·缺名《陳州糶米》四折：「則俺那勢劍如風快，你死也應該，誰着你金錠當酒來。」（許少峯編，同上揭書，頁2452）

173) 搓：將數莖草或線用兩掌搓摩使之擰緊。《警世通言》第二十二卷：「個兒郎吃我家飯，穿我家衣，閑時搓些繩，打些索，也有用處。」（許少峯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331）

174) 腰線包：應是“腰線袍”。“腰線”，元代蒙古族有一種長襖，以氈革、彩綿或苧絲制成，交領窄袖，下長過膝；它的主要特點是用彩絲捻成細線，橫綴於腰數道，既可藉此束腰，又可用為裝飾，因形得名。〈鳳簪珍珠帽，龍盤錦綉袍（二）〉：「蒙元時代腰間飾橫向線條和豎向褶子的袍服有辮線袍和腰線袍兩種名稱，實物也有兩種種，學界有一種觀點，即腰間綴捻而成的“辮線”的為“辮線袍”，而腰間橫綴條狀織物的為“腰線袍”。（摘自 百度）

175) 上：縫；裝配。

176) 紐子：可以把衣服扣合的小圓形片狀物或球狀物。亦作“鈕扣子”，“鈕”，“鈕扣”，“扭扣”。《西廂記》四本一折：「我將這鈕扣兒鬆，把纜帶兒解。」（龍潛庵編著，《宋元言語詞典》，上海辭書出版社，1985年，頁481）

177) 底似：與“抵死”同。此作“分外、格外”。王安石《與微之同賦梅花得香字》：「向人自有無言意，傾國天教抵死香。」（龍潛庵編著，同前揭書，頁519）【果字解】「底似，마장，又너르。今不用。」

178) 繖：疑是“絞”。絞，剪。通“絞”。《紅樓夢》四十一回：「我們鄉裏最巧的姐兒們，剪子也不能絞出這麼個紙來。」（許少峯主編，《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1997年，頁560）

179) 細勻：精細勻稱。

【번역】

甲某：오늘은 며칠인가?

乙某：오늘 선달 스무닷새이네.

甲某：벌써 설인데, 새 옷 한 벌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달력을 가져 오게나. 이달이 큰달인가 작은달인가?

乙某：큰달이네. 아직 닷새가 남았으니 여자들 대어섯 명이 앉아 지으면 어찌 옷 한 벌 지어내지 못하겠는가? 서두른다면 때에 맞춰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甲某：오늘은 을축일(乙丑日)이니, 두성일(斗星日)이구나. 어디 좀 보자! 각(角)은 안(安)하고, 항(亢)은 식(食)이며, 저(氏)와 방(房)은 식(食)이요, 두(斗)는 미(美)하고, 우(牛)는 휴(休)이며, 허(虛)는 득량(得糧)이요, 벽(壁)과 익(翼)은 호재(獲財)하고, 규(奎)는 득보(得寶)하고, 루(婁)는 증(增)이며, 진(軫)은 구(久)하고, 귀(鬼)는 영상(迎祥)이로다. 오늘은 좋은 날이구나. 두성일(斗星日)은 음식을 얻는 날이고, 옷을 지으면 좋다는 날이니 옷감을 꺼내서 옷을 지어야겠군!¹⁸⁰⁾ 녹청색(明綠)¹⁸¹⁾ 넓은 소매(通袖)에 스란(膝欄)¹⁸²⁾ 무늬

180) 原文 '角安', '亢食'에서 '鬼迎祥'까지의 글은 성수(星宿)로 그날의 운수를 풀이한 것이다. 앞의 註釋 147)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文殊師利菩薩及諸仙所說吉凶時日善惡宿曜經》(卷下)에서는 原文과 비슷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옷을 마음질하고 옷을 지을 수 있는 손 없는 날을 제시하고 있음이다. 즉 28수(宿) 가운데, '斗星日'을 비롯한 14개 '星宿日'에 옷을 지으면 '大吉'하다라는 내용이다. 《文殊師利菩薩及諸仙所說吉凶時日善惡宿曜經》은 略稱《宿曜經》이라고도 한다. 《宿曜經》은 上下 두 권으로, 서기 759년 중국 唐나라 4대 譯經家의 한분인 密敎의 고승인 不空에 의해서 번역되었다. 《宿曜經》은 실질적으로 唐代 印度 占星術의 入門書이다. 내용은 7曜, 27宿, 12宮 등의 星體의 運行位置를 근거로 인간의 吉凶을 풀이하고 설명하고 있다. ... 日本 헤이안(平安)시대에 空海和尚은 《宿曜經》의 '曜日'을 日本으로 들여왔다. 日本은 이것을 기초로 하여 '宿曜道'와 '占星術'을 발전시켰다. ('宿曜經全名『文殊師利菩薩及諸仙所說吉凶時日善惡宿曜經』, 有上下兩卷, 是西元759年中國唐代四大譯經家之一密敎高僧不空所譯. 宿曜經實際上是唐時期印度占星術的入門書籍, 主要內容是根據七曜、二十七宿和十二宮等星體的運行位置解讀吉凶以及方法說明. ... 日本平安時期的空海和尚把宿曜經的曜日引入日本. 日本在此基礎上發展出了宿曜道和宿曜占星術.」) (인터넷 '百度'에서 발췌 인용)

181) 原文의 '明綠'은 '綠豆'를 일컫는 말로, 여기서는 '녹두 색'을 말하고 있다.

를¹⁸³⁾ 수놓은 비단으로는 철릭¹⁸⁴⁾을 지어야겠군. 연홍(軟紅)색 바탕에 천화봉(穿花鳳) 무늬의 비단으로는 비갑(比甲)¹⁸⁵⁾을 만들고, 진홍색(鷄冠紅) 사화(四花)¹⁸⁶⁾를 수놓은 것으로는 더그레를 짓고¹⁸⁷⁾, 암청색 직금(織金)¹⁸⁸⁾의 대망용(大蟒龍)은 상개(上蓋)¹⁸⁹⁾를 짓자.

乙某: 마름질이 다 끝났으니, 이제 바느질을 시작하세.

甲某: 바느질을 못하는 아이에게는 각종 색실을 손으로 비벼서 째째하게 하

- 182) 原文의 '膝襪'에 대해서 사전에는「치맛단에 금박을 박아 선을 두른 것. 옛날 궁중이나 반가(班家)의 부녀자들의 예장용 치마에 장식했던 것으로, 폭은 약 20cm이며, 용·봉 따위의 무늬를 놓는다」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아마 조선조에 이르러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주석 149)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明代에 이르러 朝廷의 宦官들은 '蟒服'을 입었는데, 이것을 '膝襪'이라고 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元典章》이나 《明史·輿服志》의 기록을 보면 '膝襪'이 임금의 곤룡포(袞龍袍)에서 변형되어 민간에게까지 흘러들었음을 볼 수 있다. (明·沈德符《萬曆野獲編·補遺》卷二說:「蟒衣如像龍之服, 與至尊所御袍相肖, 但減一爪耳。」《元典章》卷五十八記大德元年(公元1297年), 不花帖木耳奏:「街市賣的緞子似皇上帝穿的一般, 用大龍, 只少一個爪子。四個爪子的賣者有着呵。」《明史·輿服志》:「宦官在帝左右必蟒服, …… 綉蟒于左右, 繫以鸞帶。…… 次則飛魚 ……。單蟒面皆斜向, 坐蟒則正向, 尤貴。又有膝襪者, 亦如曳撒(据《碎金》稱作曳撒), 上有蟒補, 當膝處橫織細雲蟒, 蓋南郊及山陵扈從, 便于乘馬也。或召對燕見, 君臣皆不用袍而用此。但蟒有五爪四爪之分, 襪有紅、黃之別耳。」
- 183) '膝襪'은 용·봉 따위의 무늬를 수놓고 무릎까지 덮는 도포(道袍)·난삼(襪衫)과 비슷한 옷의 이름이다. 여기서는 어깨나 섰 또는 바탕에 이무기(蟒) 따위의 무늬를 수놓은 '膝襪紋樣'을 말함이다. 다음은 '인터넷 百度'에서 찾은 '膝襪紋樣'에 관한 한 구절이다: 「철릭(貼裏)에 補子(胸背: 관복의 가슴 등에 붙이던 학이나 범을 수놓은 네모난 표장)붙이거나 雲肩紋樣 또는 通袖襪(양 소매와 어깨에 이르는 부분에 스란문양이 수놓아진 것으로 보임), 膝襪紋樣(치마 자락에 스란문양의 무늬) 등의 장식을 한다. (貼裏上也綴補子或飾雲肩、通袖襪、膝襪紋樣)(漢服網 - 讓漢服遍布全球)
- 184) 原文 '帖裏'에 대해 諺解에는「털릭」으로 풀이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철릭'에 대한 우리말 사전에는「무관의 공복(公服)의 한 가지. 직령(直領)으로 허리에 주름이 잡히고 큰 소매가 달렸음」이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신기철 편저, 《새우리말 큰 사전》, 삼성출판사)
- 185) 原文의 '比甲'은 옷웃 위에 입는 민소매 조끼와 같은 형태다.
- 186) 原文의 '四花'는 석가모니(釋迦牟尼)가 《법화경(法華經)》을 설법할 때 서조(瑞兆)로서 하늘에서 내려 온 백련화(白蓮華)·대백련화(大白蓮華)·홍련화(紅蓮華)·대홍련화(大紅蓮華)의 네 가지 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 187) 原文의 '搭護'는 남성이 입는 소매가 없는 겉옷을 말함이다.
- 188) 原文의 '織金'은 남빛 바탕에 은실이나 금실로 봉황과 꽃의 무늬를 섞어 짠 직물을 말한다.
- 189) 原文의 '上蓋'는 솜옷 위에 걸치는 덧옷이다.

고, 시침실을¹⁹⁰⁾ 가져다가 모두 시치게 하거나. 자네는 요선포(腰線袍)¹⁹¹⁾를 가져오게나, 매우 가는 진홍색 요선(腰線)을 골라서 허리에 대게나. 단추는 너무 큰 것을 달지 말고, 알맞은 것으로 달아야하네, 너무 크면 바보 같아 보인다니! 그리고 다른 아이에게는 손수건 잘라서¹⁹²⁾ 만들도록 하거나, 예쁘고 고르게 잘라서 만들도록 하거나, 삼 사십 장도 선물로 드리기에는 부족하다네.

第74話

咳, 今日熱氣蒸¹⁹³⁾人裏, 把這簾子都卷起來, 把這窗兒都支起着. 怎麼這般蠅子廣¹⁹⁴⁾? 將蠅拂子¹⁹⁵⁾來都趕了. 將一把扇兒來與我, 熱的當不的¹⁹⁶⁾. 這房

190) 原文 '水線'의 의미는 알 수가 없다. 諺解는 '스름이실(시침실)'이다. '將那水線來都引了着'에 대해 諺解는 '스름이실 가져다가 다 스즈라'이다. 이에 諺解의 풀이를 그대로 따랐다.

191) 原文의 '腰線'은 허리를 감는 띠를 말하거나 또는 그러한 띠를 단 옷(腰線襖子)를 말함이다. 우리 전통의 옷 가운데 '요선철릭'이 있다. '요선철릭'은 허리에 선이 들어간 철릭을 말함이다. 다음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볼 수 있는 요선철릭(腰線帖裏)에 관한 자료다: 『14세기의 유물로 해인사의 비로자나불 복장품으로 귀중한 자료이다. 이것의 특이한 점은 일반 철릭과 달리 허리부분에 요선(腰線)이 둘러져 있는데 앞에는 9줄, 뒤에는 10줄의 턱크(tuck)를 가로로 잡고, 그 위아래를 두 줄로 곱게 집어서 온당침하였다. 그리고 치마폭은 모두 8폭으로 곱게 맞추어 잡았다. 깃은 몽고식으로 가운데 줄이 있으며 여밈은 길다. 안고름용 끈이 달려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辮線'은 '腰線'과 같은 종류의 것이다. 핫옷 등의 허리부분에 여러 줄의 주름이나 띠가 장식된 것이 '腰線'이고, 실이나 옷감을 꼬아 허리부분에 부착시킨 '腰線'을 '辮線'이라고 한다. (裝飾于袍服腰部的多道絲線或絲帶, 卽'腰線', 而縫綴在袍服腰部用絲織品紐結成辮的腰線則稱'辮線', 辮線是腰線的一種。)] (인터넷 '百度' <鳳簾珍珠帽, 龍盤錦綉袍(二)>에서 발췌 인용) 그러나 諺解는 「실감기 땀 가져다가 ㅁ장 ㅁ는 大紅 감기엿 치를 굴히라」라는 풀이를 볼 수 있다. 이에 近來에 출간된 《譯註 朴通事諺解》 등의 譯註書에서는 「너는 실패 싹 중에서 가장 가는 대홍 실패를 골라서 마느질해라.」등으로 諺解를 따라 그대로 풀이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192) 原文 '繳'의 諺解는 '마모르다(마무르다: 마무리하다)'이다. '繳'의 일반적인 해석은 '납부하다' '휘감다', '성가시게하다' 등의 의미로 쓰인다. 이에 소리가 비슷한 '絞'와 '鉸'로 보고, 번역을 하였다. 수건의 가장자리, 즉 실패 등을 정리하거나 천을 잘라서 수건을 만든다고 보았다.

193) 蒸: 熱氣升騰. 《水滸全傳》第十六回: 「熱氣蒸人, 器塵搏面, 萬里乾坤如甌, 一輪火傘當天。」(許少峯 編, 《近代漢語大詞典》, 中華書局, 2008年, 頁2379)

子水芹田近，水蛙叫的聒噪¹⁹⁷)。這孩兒們怎麼這般定害¹⁹⁸我？一壁廂¹⁹⁹去浪蕩²⁰⁰，不的²⁰¹好歹²⁰²吃打²⁰³去。老子伯伯阿，你敢那？我兒你來，好孩兒，好孩兒，你弟兄兩個引的那小廝們，背後河裏洗澡去。定僧你來，咱河裏浪蕩去來²⁰⁴)。咱只這裏跳如去，我先跳你看。跳冬瓜跳西瓜²⁰⁵)，跳的²⁰⁶河裏仰不搽²⁰⁷)。

【번역】

甲某：아! 오늘의 열기는 찌는 것 같구나. 발을 다 말아 올리고, 창문을 모두 열어 반쳐놓아야겠군. 왜 이다지 파리가 많지? 파리채를 가져다가 쫓아내야겠군! 부채 한 자루 가져 오너라, 더워서 견딜 수가 없구나! 집과 미나리 밭이 가까워서, 개구리들이 요란스럽게 울어대니 정말

194) 廣：多，衆。元·高文秀《黑旋風》第一折：「泰安神州謊子極多，哨子極廣，怎生得一個護臂跟隨將我去方可。」(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689)

195) 蠅拂子：驅趕蚊蠅具。

196) 當不的：受不了，禁不住。

197) 聒噪：吵鬧。說話瑣碎，聲音喧鬧，令人煩躁。元·李好古《張生煮海》第一折：「僧家清雅，又無閒人聒噪，堪可攻書。」

198) 定害：攪憂，煩憂。元·張國賓《合汗衫》二折：「往常我哥哥見我，歡天喜地；今日見我，有些煩惱……必然見我早晚吃穿衣服定害他了，因此上恩多怨深。」(許少峯 主編，《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1997年，頁290)

199) 一壁廂：一邊，一傍。元·缺名《雲窓夢》第四折：「今有洛陽縣尹是今年新進士，欲招他為婿，一壁廂安排下筵席者。」(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2190)

200) 浪蕩：游手好閑，吊兒郎當。《娛目醒心編》第七卷第一回：「有一班少年浪蕩子弟，常在庵中過宿，把一個修行佛地當作楚館秦樓。」(許少峯 編，同前揭書，頁1104)

201) 不的：連詞。不然；否則。《金瓶梅》十六：「房子賣的賣，不的你着人來看守。」(白維國 編，《金瓶梅詞典》，中華書局，1991年，頁41)

202) 好歹：不管怎樣，無論如何。元·無名氏《鴛鴦被》第一折：「姑姑，你若作成我這樁親事，重重相謝，你好歹早些兒來回話。」

203) 吃打：挨揍。

204) 去來：就是“去”。“來”，語助詞。

205) 跳冬瓜跳西瓜：就是“仰面跳於水”之一種水遊戲。(參看下註 13, 14)

206) 的：在此相當於“在”或“到”，“的”同“著”。《金瓶梅詞話》：「到是我叫他抱的房裡去，恐怕晚了。」

207) 仰不搽：即是“仰刺叉”。謂仰面跌倒。亦作“仰刺擦”，“仰不刺叉”。元·孟漢卿《魔合羅》第二折：「靠着時呀的門開了，溜留撲仰刺叉喫一交。」(《近代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

시끄럽다. 이 아이들이 어찌 이렇게 귀찮게 구는 것이지? 한쪽에 가서 떠들고 놀아라! 그렇지 않으면 어찌되었든 간에 때려줄 것이야!

乙某 : 아버지 아저씨! (208) 그러기만해요! 애야 이리 오너라, 착하지! 너희 형제 들이 저 아이들을 데리고 뒤쪽 냇가로 먹 감으러 가거라.

乙某 : 定僧(정승)아! 우리 냇가로 놀러가자! (냇가에 도착하여)우리 이곳에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자. 내가 먼저 뛰어 들어갈 것이니, 잘 봐라! 풍덩! 풍덩! (209) 강물에 몸이 둥실둥실 떠다닌다! (210)

208) 原文 ‘老子伯伯’의 ‘老子’는 ‘노인네’, ‘나이든 남자의 자칭’, ‘아버지’ 등의 의미로 쓰이고, ‘伯伯’는 ‘큰아버지’, ‘아버지뻘의 아저씨’ 등의 호칭이다. 原文에서 남편이 아이들이 떠들고 노는 소리에 때려주겠다고 하니, 옆에 있는 아내가 남편에게 ‘아이고 아저씨 그러기만 해보시지’하고 남편에게 반 농담을 건네고, 아이에게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먹이나 감으러 가라고 하는 장면으로 상상해보았다. 諺解는 ‘아바 아즈바(아버지 아저씨)’이다.

209) 原文 ‘跳冬瓜跳西瓜’에 대한 해석은 原文 ‘仰不探’에서 찾을 수 있다. ‘仰不探’은 原文에 대한 註釋의 설명에서처럼, ‘얼굴을 하늘을 향한 채, 몸을 거꾸로 하여 물로 뛰어드는 상태’를 말함이다. 다음은 중국 ‘百度網’에서 찾을 수 있는 ‘跳冬瓜’ 一句에 대한 실마리다: 「벌거숭이로 돌아다니는 것은 어릴 때의 한 풍경이다. 지금의 나체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어릴 때의 옷을 입지 않고 벌거숭이가 되는 것은 모든 남자 아이들이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 오머가며 옷을 입고 벗는 성가심을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일 년 중에서도 여름에 나 실오라기 하나 걸치고 다닐 수가 있다. 이렇게 하고 다니면 걱적거리가 없고 너무나 자유롭기 때문이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대로 어느 연못이던 작은 냇가이던 뛰어들 수가 있었고, 머리가 먼저 물에 들어가던 아니면 발을 먼저 물속에 집어넣던, 그것도 아니면 아예 몸을 큰 대자로 벌리고 물속에 수박처럼 벌렁 떨어지면, 그 느낌은 통쾌하고 시원한 이런 느낌은 그 어느 것보다 바랄 수가 없다. (就先從光屁股的時候說起吧。光屁股是小時候的時尚，和現在的裸體有着本質的區別。童年的光屁股几乎是所有男孩的最愛，因為這樣不僅省去了來回穿衣脫衣的麻煩，而且一年之中也只有夏天可以這樣一絲不挂，這樣了无牽挂，這樣徹徹底底的自由。其實，最重要的是，可以隨便到哪個池塘或者小河邊徑直跳下去，無論選擇頭部先入水還是腳部先入水，還是干脆四仰八叉直挺挺來個跳冬瓜，那種痛快淋漓酣暢無比的感覺是沒有什麼無法比擬的。- 毛春鐸：我為什麼如此懷念童年) 또한 신문의 한 기사에서 ‘跳冬瓜跳西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가 있다: 「몸이 물속에서 둥둥 떠 있을 수 있게 하는 ‘水上漂’의 명인 張玉芬은 1926년 ‘長涇鎮長廳’에서 태어난 87살의 高齡이다. 어렸을 때 할머니의 집 앞에는 깨끗한 ‘涇水河’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물과는 아주 친숙하였고, 아이들은 물속에서 노는 ‘跳冬瓜’놀이를 가장 좋아했다. 그 누구도 이 할머니보다 잘 노는 아이는 없었다. 할머니는 “바로 다리위에서 곧장 물속으로 뛰어 내렸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물고기를 잡던 물놀이를 하던 내가 다른 아이들을 몰고 다녔습니다.”라고 추억을 떠올렸다. (這位“水上漂”高人名叫張玉芬，1928年出生于長涇鎮張廳，今年已87歲高齡。… 小時候在她老家一走出門就是清澈的涇水河，她從小就和水打交道，小孩子最喜歡的水上遊戲“跳冬瓜”，誰也玩不過她。“就是直接從橋上往河裏跳，我小時候捉魚啊玩水啊，都是我帶着別的孩子玩的。”老人回憶道。) 즉, ‘跳冬瓜跳西瓜’나 ‘仰不探’는 아이들이 먹을 감을 때, 마치 수박이나 무를 물속에 던지면 둥둥 떠오르는 것처럼 물속으로 침병 뛰어나리는 물장난의 한 놀이를 말함이다.

第75話

我家裏老鼠好生廣，怎的²¹⁰好？你家裏沒貓兒那²¹²？我家裏沒，庫房櫃子裏放的米都吃了，我的衣裳、被兒、包袱也都咬了，恨的我沒是處²¹³。那的²¹⁴不賣貓兒的？籃子裏盛將去。是，賣貓的，將貓兒來，我買一個。我要這女²¹⁵花貓兒。女的價錢大。要多少賣？兒²¹⁶的五十個錢，女的一百個錢賣與你。賣的價錢老實²¹⁷說。又不是大買賣，有甚麼討價錢處？一百個錢短一個錢也不賣。硬²¹⁸道是這們²¹⁹一個貓兒怎麼直得一百個錢？這潑²²⁰禽獸，殺娘賊，賣便賣，不賣便將的²²¹去。你也不買便罷，錢是你上²²²有，物在我根底²²³，你爲甚麼罵

210) 原文 '仰不揅은 "仰刺叉", "仰刺擦", "仰不刺叉" 등의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뒤로 별령 넘어지는 상태를 말함인데, 여기서는 '얼굴을 하늘을 향한 채, 몸을 거꾸로 하여 물로 뛰어드는 모습 또는 그러한 상태' 말한다. 現代中國語에서는 바로 위의 註釋에서의 설명처럼, '仰八叉'는 '물속으로 별령 뛰어드는 동작'을 말함이고, '跳冬瓜'는 '몸이 수박처럼 물속으로 떨어져서도 둥둥 떠 있는 상태'를 말함이다. 즉 '水上漂'이다. 즉 '跳冬瓜'는 바로 '仰不揅'이다. 이에 전체를 '몸이 수박처럼 물속으로 떨어져서 둥둥 떠 있는 모습'으로 번역을 하였다.

211) 怎的：同“怎地”。怎樣，如何。《三遂平妖傳》二回：「四下又無壁落，風雨雪下，怎地安身？不免搬去不厮求院子裏住。」（許少峯 主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1449）

212) 那：此作語助詞，表疑問。金·董解元《西廂記諸宮調》卷一：「百媚鶯鶯正驚訝，道：“這妮子荒忙則甚那？管是媽媽便來吵！”」

213) 沒是處：猶言不得了，沒辦法。元·關漢卿《蝴蝶夢》第二折：「教我兩下裏難瞻顧，百般的沒是處。」

214) 那的：那裏。表處所。《七國春秋平話》卷中：「（齊王）行至天晚，問人，那的是滿城縣普田村。」

215) 女：雌性。

216) 兒：雄性。《綺樓重夢》第三三回：「話未說完，只見店廊下拴的馬有匹兒馬，瞧見了一匹騾馬，就要爬上它背去。」（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518）

217) 老實：真實，實實在在。清·李漁《風箏誤》第十六出：「戚相公請老實些，上門的生意，不要錯過。」（許少峯 主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1117）

218) 硬：強行；勉強。

219) 這們：此等，這種。《清平山堂話本·快嘴李翠蓮記》：「吟得詩，做得對，經商賣買這般會。這們女婿要如何？愁得苦水兒滴滴地。」

220) 潑：對某事物厭惡的罵事。等於鄙陋，賤劣。《古今小說》第四十卷：「你這潑差人，其心不善，我也覺得有七八分了。」（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1449）

221) 的：動詞後綴。也作“得”。關漢卿《喪度還帶》二【煞】「我則理會的先王之遺道爲美，正是不患人之不知己。」（藍立棠 編著，《關漢卿戲曲詞典》，四川人民出版社，1993年，頁61）

222) 上：此有“那兒”、“那裏”之意。《變文集·李陵變文(95頁)》：「過失推向將軍上，漢家兵法

人? 你爲甚麼胡討價錢? 我先惹²²⁴你來? 愛錢買東西, 夾着屁眼²²⁵家裏坐的去。這弟子孩兒²²⁶! 你敢罵我? 怎麼不敢罵你? 這的便是²²⁷仰面唾天。常言道: “風不來, 樹不搖。雨不來, 河不漲。”

【번역】

甲某: 내 집에 쥐새끼들이 우글거리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乙某: 집에 고양이가 없습니까?

甲某: 우리 집에는 없어서, 곳간 궤에 담아놓은 쌀을 다 파먹고, 내 옷이며 이불 그리고 보따리들도 물어 뜯어놓아서, 내 약이 올라 어찌할 바를 모르겠소!

乙某: 저기에 고양이를 파는 장사치가 있지 않습니까? 바구니에 담아가고 있습니다.

甲某: 맞습니다! 이보시오 장수! 고양이를 가져와 보시오, 내 고양이 한 마리 사겠소! 난 이 얼룩 암 고양이를 사겠소.

商人: 암 고양이는 값이 비쌉니다.

甲某: 얼마요?

商人: 수놈은 50錢이고, 암놈은 100錢을 받아야 합니다.

甲某: 정확히 팔 값을 말하시오.

任交虜。(此言把過失推到將軍李陵身上。將軍上, 指將軍方面。) (拙稿, 《老乞大語彙考》, 中國語文論叢, 第39輯)

223) 根底: 猶云面前或旁邊也。按, “牙根底”, 此猶云“牙邊”, 就是“牙齒周圍”。張相《詩詞曲語辭匯釋》: 「《樂府新聲》下, 無名氏小令, 《罵玉郎過感皇恩採茶歌》: “無情杜宇聞淘氣。頭直上, 耳根底, 聲聲聒得人心碎。” 此猶云耳邊。」(上海古籍出版社, 2009年, 頁632)

224) 惹: 招引, 挑逗。

225) 屁眼: 肛門的俗稱。

226) 弟子孩兒: 罵人話。娼妓生的孩兒。元·鄭廷玉《忍字記》第一折: 「這個窮弟子孩兒, 要錢則要錢, 題名道姓怎的!」

227) 這的便是: 即「這個就是」。按, 這個是, 此便是。元·孟漢卿《魔合羅》三折: 「這的是打家劫盜勒完的賊, 這個是犯界茶鹽取定的詳。」(許少峯主編, 《近代漢語詞典》, 團結出版社, 1997年, 頁1474)

商人：큰 장사도 아닌데 무슨 흥정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100錢에서 한
푼이라도 모자라면 팔지 않겠습니다.

某甲：이런 고양이가 어찌 100錢이나 간다고 생떼를 쓰는 것이지? 이런 짐
승보다 못한 지애미를 죽일 놈 같으니라고, 팔면 팔고, 팔지 않으려면
가지고 꺼져라!

商人：당신도 사지 않으면 고만인 것이요. 돈은 당신 돈이지만, 물건은 내
물건이요. 왜 나에게 욕을 하는 것이요?

某甲：왜 값을 멋대로 부르는 것이야! 내가 먼저 싸움을 시작했는가?

商人：돈이 아까워 사질 못한다면 엉덩이나 깔고 짐구석에 앉아계시오!

某甲：이 잡놈의 자식이 감히 나한테 욕질을 해!

商人：왜 욕을 못해! 이것이 바로 누워서 침 뱉기라는 것이요. 옛말에 “風不
來樹不搖，雨不來河不漲(바람이 불지 않으면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비가 오지 않으면 강물이 불어나지 않는다)”라고 하였소.

第76話

蚊子咬的當不的，孩兒，你饋²²⁸⁾我買將²²⁹⁾草布蚊帳來，打着睡。裏頭床兒
不穩，將碎磚塊來，墊²³⁰⁾的穩着。把這窗孔的紙都扯²³¹⁾了，一發²³²⁾着²³³⁾
草布糊了，那般却²³⁴⁾蚊子怎麼得入來？你家裏不有菖蒲來²³⁵⁾？有的是²³⁶⁾

228) 饋：給，替。

229) 將：語義虛化，置於單音節動詞之後，構成該詞的雙音節形式，表示動作的繼續或完成。如：
般將(搬運)、唱將(演唱)、持將(持)、取將(收取)等。

230) 墊：用別的東西襯在下面使物平穩。宋·趙叔向《肯綮錄》：「支物不平曰墊。」(《漢語大
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

231) 扯：撕。《水滸全傳》第十回：「(林衝)把陸謙身上衣服扯開，把尖刀上心窩裏只一剗，七竅
進出血來。」(許少峯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220)

232) 一發：此作“統統、全部”之意。《合汗衫》三白：「母親有的話，一發說了罷。」(顧學頴王
學奇，《元曲釋詞》卷四，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0年，頁224)

233) 着：把，用。元·朱凱《黃鶴樓》第三折：「這廝好無禮也，他着言語譏諷我。」

234) 却：副詞。于是；就。《秦并六國》：「要戰却戰，捉獲太子，休言此話！」(劉堅、江藍生主

裏²³⁷)。你摘饋我些葉兒。要做甚麼? 那菖蒲葉兒來做席子, 鋪着睡時, 跳蚤那厮近近的。最好! 最好! 我只會²³⁸)根兒解酒和做醋, 不知葉兒用處, 因你要蒲葉, 我也學了。菷

【번역】

甲某: 모기가 물어서 견딜 수가 없군! 애야, 네가 내 대신에 草布(성긴 베)²³⁹)로 만든 모기장을 사와야겠어! 내가 치고 잘 것이야. 안에 침대가 건들거리니 벽돌 조각을 가져다가 단단히 고이게나. 구멍이 뚫려있는 창문의 종이를 다 뜯어내고 전부를 草布를 발라 놓으면 모기가 어찌 들어오겠는가? 자네 집에 창포(菖蒲)가 있지 않은가?

乙某: 얼마든지 있네.

甲某: 이파리를 좀 따오게나.

乙某: 뭐에 쓰려고?

甲某: 그 창포 잎으로 자리를 만들어 깔고 자면 벼룩 그 놈들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네!

乙某: 그래! 그것 참 좋은 말이네! 난 그저 뿌리로 술을 깨게 하는 효능과 식초를 만드는 것만을 알고, 이파리의 용도를 모르고 있었는데 자네가 창포를 달라고 하는 바람에 배우게 되었군!

編, 《元語言詞典》, 上海教育出版社, 1998年, 頁256)

235) 來: 語末助詞: 猶吧、嘛。元·秦簡夫《東堂老》楔子:「叔父息怒, 父親的證候, 你孩兒待說不知來, 可怎麼不知: 待說知道來, 可也付量不定。」(許少峯 編, 《近代漢語大詞典》, 中華書局, 2008年, 頁1091)

236) 有的是: 強調很多很多。元·鄭廷玉《冤家債主》第二折:「你哥哥那裏有的是錢, 俺幫着你到那裏討去來。」(許少峯 編, 《近代漢語大詞典》, 中華書局, 2008年, 頁2272)

237) 裏: 猶助詞呢。明·缺名《蘭銅台》第二折:「(宋江云)學究, 一路上辛苦也。(正末云)爲朋友有甚麼辛苦來。」(許少峯 編, 《近代漢語大詞典》, 中華書局, 2008年, 頁1091)

238) 會: 明白; 懂得。徐再想〔蟾宮曲〕《春情》:「平生不會相思, 才會相思, 便害相思。」(劉堅、江藍生 主編, 《元語言詞典》, 上海教育出版社, 1998年, 頁126)

239) 중국어사전에 原文 '草布'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가 없다. 諺解는 '얼린 비'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얼린'에 대해 《李朝語辭典》에는 '성기다'로 풀이하고 있다. '얼린 비 모피당'은 '성긴 베로 만들어진 모기장'이다.

第77話

你那告狀的勾當²⁴⁰，發落²⁴¹了不會²⁴²？凭着理時，合²⁴³斷²⁴⁴與小人，堂上官²⁴⁵人們都商量了。待到根前²⁴⁶來，那冤家們打關節²⁴⁷時²⁴⁸，內中一兩個官人受他錢財當住，還不肯發落。該管的外郎²⁴⁹也受了些錢財，把我的文卷²⁵⁰來，颯²⁵¹在櫃子閣落²⁵²裏，不肯家啓稟²⁵³，知他²⁵⁴是幾時的勾當？可

240) 勾當：① 事情。《京本通俗小說》15卷：「這也是先前不十分窮薄的時候做下的勾當。」② 做事；謀生。《水滸傳》二回：「只得子母二人逃上延安府去，投托老種經略相公處勾當。」（吳士勛·王東明 主編，《宋元明清百部小說詞語大辭典》，陝西教育出版社，1992年，頁352）

241) 發落：處置，辦理。安排。

242) 不會：與現代漢語“沒有”同。放在句末構成是非疑問句。太田辰夫 著 蔣紹愚、徐昌華譯《中國語歷史文法》：「“沒有”用作准句末助詞以前，用的是“不會”。例如：“那寄書的人去了不會？”（救風塵2）“沒有”也用於完成或過去的場合。這種用法出現於明代。例如：“你灌了他些姜湯兒沒有？”（金19）」（北京大學出版社，1987年，頁363）

243) 合：該。又作“合當”，“當合”，“合該”，“合是”。關漢卿《調風月》三【聖藥王】：「然道戶厮迎，也合再打聽，兩門親便走一遭兒成？」（藍立英 編著，《關漢卿戲曲詞典》，四川人民出版社，1993年，頁106）

244) 斷：判決，判處。《三遂平妖傳》第八回：「你得了寶物，相應免我之罪，倒把我屈斷刺配密州去。」（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493）

245) 堂上官：堂上，指官署長官。《紅樓夢》第九四回：「賈政正要下班，因堂上發下兩省城工估銷冊子，立刻要查核，一時不能回家。」《老殘遊記》第十六回：「又聽堂上喝道：‘你還不招嗎？不招我又要動刑了！’亦稱“堂上官”。按，堂上官，明朝沿唐宋官制，設吏、戶、兵、禮、刑、工六部。稱為尚書，官階二品。其副職稱為左侍郎、右侍郎，統稱為堂上官。

246) 根前：面前，身邊。《醒世姻緣傳》第六十三回：「你十日不拿出來，我監你十日，你那娘子又一時到不得根前，沒人求你。」（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635）

247) 打關節：指行賄，說情，疏通關係等不正當手段。《水滸傳》四十九回：「（毛太公）分付孔目王正：“與我一發斬草除根，萌芽不發，我這裏自行與知府的打關節。”」（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351）【夾註】「『吏學指南』云：下之所以通款曲於上者曰關節，又造請權要謂之關節。漢口關說。宋包拯剛直好駁，時人語曰：“關節不到，有閻羅包老。”如本國俗語“소정 님다.”」

248) 時：當時，那時。唐·韓愈《祭十二郎文》：「汝時尤小，當不復記憶；吾時雖然能記憶，亦未知其言之悲也。」（《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

249) 外郎：宋元以來對衙門吏書的稱呼。亦指縣府小吏。元·無名氏《陳州糶米》第四折：「今日包待制大人陸廳坐衙，外郎，你與我將各項文卷打點停當，等爺押者。」

250) 文卷：公文案卷。

251) 颯：古通“丟”，拋擲，扔，甩。王實甫《西廂記》第二本楔子：「不念法華經，不禮梁皇懺，颯了僧伽帽，袒下我這偏衫。」

252) 閣落：即角落，吳語角，閩音同。關漢卿《玉鏡臺》四折：「你在黑閣落裏欺你男兒，今日呵

知道²⁵⁵)不肯用心,沒油水²⁵⁶)的勾當,那裏肯用心發落?我放着合理的事,與他甚麼東西?怎麼這般說?如今是財帛世界²⁵⁷),你不與他一文錢,你道²⁵⁸)是合理的事,幾時倒²⁵⁹)的了?你多與他錢物,好好的說,這般時口也順,終久²⁶⁰)是有道理的勾當。街上人道的是,如今是牆版²⁶¹)世界,反上反下,只怕²⁶²)反²⁶³)過來也不見的²⁶⁴)。我料你那事色²⁶⁵),這般時兌當²⁶⁶)着幹時,好的²⁶⁷)一般²⁶⁸)?這官司

可不道之斥鑿與。」(許少峯 主編,《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1997年,頁389)【夾註】「音”之”空”,指一隅深奧之處。舊本未得本字,而借用“栲栳”二字。…今不採用,唯於「直解小學」內,字作“閣落”,兩字之音,稍為仿佛,今亦用之。然“閣”字音亦小不合,讀者詳之。」

253) 啓稟：啓奏，稟告。

254) 知他：略同現代漢語的反語詞“管他”、“不是～嗎元”、“怎麼能～呢”之意。王伯成《天寶遺事》祿山謀反(三煞)：「動無喘息行無汗，坐也昏沉睡不安，兩行淚道漬成斑。每日家做件的胡友胡兒，胡舞胡歌，胡吹胡彈，知他是甚風範？」(拙稿,《老乞大語彙考》，中國語文論叢,第39輯)

255) 可知道：當然。也作“可知”。

256) 油水：比喻分外的或不正當的收入。《水滸傳》第三十六回：「宋江便去打開包裹，取出些碎銀子，那人立在側邊偷眼睨着，見他包裹沉重，有些油水，心內自有八分歡喜。」

257) 世界：泛指世道人情。《金瓶梅詞話》四三回：「恨殺我罷了，不看世界面上，把你這蔬歪刺骨兒就一頓拳頭打死了。」(許少峯 主編,《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1994年,頁1031)又,世道。《儒林外史》第一回：「你們知道現在是非錢不行的世界了。」(高文達 主編,《近代漢語詞典》，知識出版社,1992年,頁715)按,此作“社會風氣”。

258) 道：估量，揣度之詞，猶以爲，猶想，猶料。元·無名氏「甚麼人喚門哩？我開開這門。我道誰，元來是劉二公。」(王學奇 王靜竹 撰著,《宋金元明清曲辭通釋》，語文出版社,2002年,頁273)

259) 倒：換轉，倒換，更換。鄭廷玉《金鳳釵》四折：「兀那銀匠，我有些東西，倒些錢使。」(高文達 主編,《近代漢語詞典》，知識出版社,1992年,頁141)

260) 終久：畢竟，到底。同“終究”。《三遂平妖傳》第十九回：「看看城外又添了許多軍馬，併力攻打城池，雙日不着單日着，終久被他捉了。」(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2412)

261) 牆版：亦作“牆板”。板壁；木板牆。

262) 只怕：恐怕，惟恐。《二刻拍案驚奇》第九卷：「(鳳生)便道：“…我們且自上床，凭他們外叫喚，不要睬他。”素梅也慌道：“只怕使不得，不如我去休”。鳳生極了，狠性命抱住。」(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2412)

263) 反：翻轉，顛倒。

264) 不見的：同“不見得”。說不定，不一定。元·朱凱《昊天塔》第一折：「假當時不尋自盡，拚命殺出去，或者有個僥倖也不見的。」(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143)

265) 事色：情況，形勢。猶吳語苗頭。元·鄭德輝《伊尹耕莘》楔子：「某乃副帥老越是也，統人馬征戰方伯，先領五千游兵引戰，沒奈何看事色，得手走+崑了爲上計。」(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1702)

266) 兌當：應是“對當”。應對，酬答。按排。

267) 好的：“好”，正，正好。又作“好的”。關漢卿《竇兒怨》二付淨曰：「你在城外將那婆子要勒

人們，緊不的²⁶⁹，慢²⁷⁰不的，不使錢，乾²⁷¹勾當，不濟事²⁷²。常言道：“衙門處處向南開²⁷³，有理無錢休入來。”

【번역】

甲某：자네 그 송사에 관한 일은 처리가 되었는가?

乙某：이치대로라면 응당 처리 결과를 저에게 알려줘야 했지요. 堂上官들께서는 합의를 끝내고 제 손안에 오기가 싶었는데, 그 원수 같은 놈들이 뇌물을 쓰고 청탁하니 그 중의 한 두 명의 관리가 그들의 뇌물을 받고 아직까지도 처리를 미루고 있다네. 그리고 문서의 송부 등을 맡아하는 서리들도 뇌물을 받아먹고는 내 문건을 제각 구석에 내던져 놓는 위에다 아뢰지 않고 있으니, 언제 적 일인지 모르겠네!

甲某：당연히 신경을 쓰지 않겠지! 생기는 것이 없으니 누가 신경을 써서 처리를 해주겠는가?

乙某：누가보아도 합당한 일을 두고 그들에게 뭘 주어야 한다는 말인가?

甲某：어찌 그렇게 말하는가? 지금은 돈이 최고인 세태일세! 자네가 그들에게 한 푼이라도 주지 않으면 자네가 이치에 합당하다고 여기는 일도 어느 세월에 바르게 되겠는가? 자네가 그들에게 재물을 좀 주고, 말을 잘 건네게나. 이렇게 하면은 말도 잘 통할 것이고 결국에는 일이

死，好的是你來。」(藍立萸 編，〈關漢卿戲曲詞典〉，四川人民出版社，1993年，頁106)

268) 一般：同樣，相同。《金瓶梅》一回：「若乃持盈慎滿，則爲端士淑女，豈有殺身之禍，古今皆然，貴賤一般。」(白維國 編，〈金瓶梅詞典〉，中華書局，1991年，頁621)

269) 不的：同“不得”。不能夠。《水滸全傳》第三回：「他家大娘子好生利害，將奴趕打出來，不容完娶，着樂店主人家追要原典身錢三千貫。父親懦弱，和他爭執不的，他又有錢有勢。」一本作“不得”。(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143)

270) 慢：鬆弛，懈怠。

271) 乾：白白地，徒然。按，乾勾當就是“白做事”。

272) 不濟事：不能成事，不頂用。《老殘遊記》：「封侯不濟事，要有錢才能辦事呀。」

273) 衙門處處向南開：【夾註】『南村輟耕錄』云：凡衙門皆坐北南向者，南方屬離卦，離虛中則聰，又南方火位，火明則能破暗，故表南面總名、爲民治愚暗之事。臺門必北開者，取肅殺就陰之象。」

바르게 될 것일세!

乙某 : 사람들의 말이 맞네! 지금은 판벽(板壁)²⁷⁴과 같은 세태(世態)이니, 얽어졌다 뒤집어졌다 어쩌면 (판결이)뒤집어질지도 모르는 일이지!

甲某 : 내가 그 일의 상황을 짐작컨대,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진행을 한다면 딱히 결말이 똑같을 것일세. 관아의 사람들은 재촉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느슨하게 놔두어서도 아니 되는 일이니, 돈을 쓰지 않으면 성사시킬 수가 없네. 옛말에 「衙門處處向南開, 有理無錢休入來(관아의 문들은 위엄을 갖추고 활짝 열려있지만, 합당한 이유가 있어도 돈이 없으면 들어 올 수가 없다).」라는 말이 있네.²⁷⁵

第78話

我差使²⁷⁶出去了, 一夏裏²⁷⁷不會好生²⁷⁸收拾²⁷⁹, 把我的銀鼠皮背子貂

274) 原文 '牆版世界'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는 알 수가 없다. '담장이 처진 꼭 막힌 세태'로 볼 수도 있으나, 뒤에 '反上反下, 只怕反過來也不見的(얽어졌다 뒤집어졌다, 어쩌면 뒤집어질지도 모르는 일이 아닌가)'라는 대목에서 '牆版'을 '판벽(板壁)'으로 번역을 하였다. '판벽'에 대한 사전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헛간이나 창고, 문간 등 난방이 필요치 않은 곳에 주로 쓰인다. 중방을 기준으로 하부는 판벽(板壁)으로 하고 상부는 심벽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의 판벽은 널을 세워 대는 것이 일반적이다. 판벽은 일반적으로 벽선 없이 기둥 사이의 중방과 하방에 흠을 파고 판재를 끼워 넣는다. 판재 중간에는 띠장목을 두 줄로 길게 대고 띠장목에는 머리가 큰 광두정을 박아 판재와 고정시킨다. [네이버 지식백과] 판벽 (알기 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즉 판문에 끼는 나무판재는 상하와 앞뒤의 구분이 없으니, '세살일이란 정답이 없고,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의미로 '牆版世界'를 풀이 하였다.

275) 原文 '衙門處處向南開, 有理無錢休入來'一句는 官衙의 문들이 위엄을 갖추고 백성들을 위하여 열려있지만, 합당한 이유가 있어도 돈이 없으면 관아에 들어가 訴狀을 낼 수 없다는 속담이다. 뇌물을 바쳐야하는 관아의 탐욕을 풍자하는 이러한 속담은 '衙門六扇門, 有理無錢莫進來', '衙門八字開, 有理無錢莫進來' 등이 있다.

276) 差使 : (1) 指官職, 職務. (2) 差遣 : 派遣. (3) 犹差事. 被派遣去做的事情.

277) 裏 : 在此作表示時間的助詞. 《董西廂》卷一 : 「病裏逢春, 四海無家, 一身寄客。」

278) 好生 : 很, 很是, 非常. 《水滸傳》十五 : 「這伙人好生了得, 都是有本事的. (李法白 劉鏡芙 編著, 《水滸語詞典》, 上海辭書出版社, 1989年, 頁113)

279) 收拾 : 此作料理, 安排. 元·缺名 《衣襖車》一折 : 「狄青收拾軍裝去了也, 凭着此人英雄, 必有輔國之志, 定亂之術。」

鼠皮丟袖，虫蛀²⁸⁰的無一根風毛²⁸¹，怎的²⁸²好？咳，可惜了！這的是²⁸³誰的不是？你臨去時節²⁸⁴，家裏好生囑付，着²⁸⁵菖蒲末兒²⁸⁶撒的勾了着，每日裏日頭裏晒，比及²⁸⁷晌午²⁸⁸剝²⁸⁹正熱時分收拾。每日這般用心弄時²⁹⁰，虫子怎麼蛀的？這的是怪不的人，也怪不的虫子，你的不是。罷罷，休煩惱，身已²⁹¹安樂時，有也。古人道：“休道黃金貴，安樂直錢多。”

【번역】

甲某：내 차사(差使)로 나가 있어, 여름 내 잘 간수하지 못해서, 내 은서피(銀鼠皮) 배자(褙子)에 초소피(貂鼠皮)로 덧댄 소매 자락에,²⁹² 줌이

280) 蛀：蠹蝕；被蛀蟲咬壞。（《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

281) 風毛：皮衣襟上和袖口處的裝飾性皮毛邊。《紅樓夢》第五一回：「我倒有一件大毛的，我嫌風毛出的不好了，正要改去。」（摘自 百度）

282) 怎的：怎樣，如何。《金瓶梅詞話》第二十回：「爹，你怎的恁沒羞！娘幹壞了你的甚麼事兒，你信淫婦言語？」（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2330）

283) 的是：確是，真是。元·白仁甫《牆頭馬上》第三折：「相公不合煩惱合歡喜，這的是不曾使一分財禮，得這等花枝般媳婦兒。」（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423）

284) 時節：時候。《七國春秋》卷中：「只見你每來時節，有一人從後門去了。」（劉堅 江藍生 主編，《元語言詞典》，上海教育出版社，1998年，頁288）

285) 着：此作“用”解。白居易《還李十一馬》詩：「傳語李君勞寄馬，病來唯着杖扶身。」（張永言等編，《簡明古漢語字典》，四川人民出版社，1991年）

286) 末兒：即“末”。碎屑，粉末。

287) 比及：及至，等到。《京本通俗小說·馮玉梅團圓》：「比及到家，那漢還站在門首，依依不去。」（龍濟庵 編著，《宋元語言詞典》，上海辭書出版社，1985年，頁107）

288) 晌午：正午。《紅樓夢》第八回：「至晌午，賈母便回來歇息。」

289) 剝：偏斜。同“歪”。元·薛昂夫《端正好·高隱》曲：「酒醒覺來時，直睡到參兒剝。」（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334）

290) 時：表示假定的語助詞。與“呵”同。

291) 身已：金、元人稱身體為“身己”；又作身起、身奇（呼如記）、身肌，音近義並同。《劉知遠諸宮調》二（般涉調·沁園春）：「撲翻身己，權時敬待。」（顧學頌 王學奇，《元曲釋詞》卷三，中國社會科學出版社，頁317）

292) 原文‘貂鼠皮丟袖’에 대한 諺解는 ‘貂鼠皮 소매 초자 내 부틴 갖으시다가’이고, 改修本인《朴通事新釋諺解》에서는 ‘把我的銀鼠皮襖上的貂鼠袖(내 銀鼠皮 갖옷 세울린 초피소매를다가)’로 개수되고 諺解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把我的銀鼠皮背子貂鼠皮丟袖’로 붙여서 斷句를 하였고, 또한 ‘은서피(銀鼠皮) 배자(褙子)에 초소피(貂鼠皮)로 덧댄 소매 자락’이라고 번역을 했다. ‘丟袖’一詞에 대한 풀이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어휘 ‘丟袖襖’一詞를 중국인터넷에서 볼 수가 있다. 『秧歌(양가)를

슬어 털이 없어서 버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乙某 : 아이고! 참으로 애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떠나시기 전에 집에 잘 부탁하여 창포 가루를 고르게 뿌리고 날마다 햇볕에 말리고, 한낮이 지나 열기가 막 가시려고 할 때 거두어들이도록 당부를 했어야 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마음을 써서 털 옷을 관리를 했다면 좀이 어찌 먹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들을 탓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좀 벌레의 탓도 아니고 모두가 본인의 잘못입니다. 자! 자! 속상해 하지마세요! 몸이 편안해야 되지요!²⁹³⁾ 옛말에 「休道黃金貴, 安樂直錢多(황금이 귀하다고 말하지 마라, 편안함이 값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30여년이나 불렀어도 인간사의 희로애락을 다 부를 수는 없었다. ... 2009년 설 전날에赤峰市(적봉시)에서 나를 무형문화재(非物質文化遺產)傘頭曲(산두곡)의 전승자로 인정하였다. ... 우리의 모임은 그 역할이 분명하다. 남자는 하나같이 못난이 분장이요, 여자들은 하나같이 선녀들의 분장이다. 죽마놀이(高蹺)의 남자들은 동작이 날렵하고 익살맞다. 그래도 재미로 치자면 팔푼이로 분장한 사람(傻柱子)일 것이다. 그는 개가죽모자(털이 귀까지 덮는 겨울모자)를 거꾸로 뒤집어쓰고, 어깨에는 돈주머니 띠(錢褡)를 차고, 얼굴은 숯 검댕이 칠을 하고, 손에는 채찍을 휘두르면서, 밭이 터진 바지에 소매를 달아 맨 갓옷을 입고, 엉덩이를 실룩실룩 흔들면서 아버지 어머니 하고 목 놓아 부르는 바보스러운 동작은 정말로 가관이다. (唱秧歌唱了三十多年, 唱不盡人間的苦辣酸氹。... 這段傘頭曲, 是2009年春節前夕, 我被定為赤峰市非物質文化遺產「傘頭曲」的專承人, ... 鄉村協會, 角色分明。丑角個個醜八怪, 旦角人人美天仙。高蹺隊裏的丑角都是高手, 舞姿輕盈, 動作滑稽。鬧得最歡的要數傻柱子啦, 他翻戴狗皮帽, 肩背破錢褡, 臉抹鍋底灰, 手舞打狗鞭, 開襠褲子丟袖襖, 一邊扭一邊喊爹叫娘, 那股傻氣令人忍俊不禁。) 【摘自 百度】 - 中國教漢網(作者: 孟慶和, 2012年10月)」 중국 동북지방에서 행해지는秧歌(양가)놀이에서 팔푼이로 분장한 사람을 '傻柱子'라고 한다. '傻柱子'가 입은 옷차림의 사진을 보면 길게 늘어진 소매 자락을 볼 수가 있다. 改修本에서 말한 '把我的銀鼠皮背心貂鼠皮丟袖(銀鼠皮褙子에 貂鼠皮 소매를 던진 옷)'가 맞다고 보았다. 이에 '은서피(銀鼠皮) 배자(褙子)에 초소피(貂鼠皮)로 던넌 소매 자락'으로 풀이하였다.

293) 原文 '身己安樂時, 有也'에 있어, '有'字 출현의 이유를 알 수가 없다. 諺解는 '몸이 安樂하면 이시리라'로 풀이하고 있고, 改修本인 《朴通事新釋諺解》에서는 '你的身子安樂就是福了'로 改修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參考文獻〉

原典類

- 《朴通事新釋·朴通事新釋諺解》，서울대학교규장각。
《老乞大，朴通事諺解》，亞細亞文化史(影印本)，1973年。
汪維輝，《朝鮮時代漢語教科書叢刊》(全四冊)，中華書局，2005年。
錢南揚著，《永樂大典戲文三種校注》，臺灣：華正書局，1990年。
王學奇等校注，《關漢卿全集校注》，河北教育出版社，1990年。
李小強·王小忠 注釋，《西廂記》，中國文聯出版公司，1997年。
劉堅·蔣紹愚 主編，《近代漢語語法資料彙編》(元代明代卷)，商務印書館，2002年。
王士點·商企翁(元)，《秘書監志》，百度(인터넷)電子版。

詞典類

- 張相，《詩詞曲語辭匯釋》，中華書局，1991年。
《詩詞曲語辭匯釋》，上海古籍出版社，2009年。
顧學頡·王學奇，《元曲釋詞》卷一，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3年。
_____，《元曲釋詞》卷二，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4年。
_____，《元曲釋詞》卷三，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8年。
_____，《元曲釋詞》卷四，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0年。
劉堅·江藍生 主編，《元語言詞典》，上海教育出版社，1998年。
_____，《宋語言詞典》，上海教育出版社，1999年。
許少峯 主編，《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1997年。
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
龍潛庵 編著，《宋元語言詞典》，上海辭書出版社，1985年。
高文達 主編，《近代漢語詞典》，知識出版社，1992年。
吳士勳·王東明 主編，《宋元明清百部小說詞語大辭典》，陝西教育出版社，1992年。
呂叔湘 主編，《現代漢語八百詞》增訂本，商務印書館，1999年。
_____，《中國文法要略》，商務印書館，1982年。
張惠英，《金瓶梅俚俗難詞解》，社會科學文獻出版社，1993年。
《中朝詞典》，中國民族出版社，1986年。
《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1991年。
中國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纂室編，《現代漢語詞典(修訂本)》，商務印書館，1986年。

-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編,《現代漢語詞典(修訂本)》,商務印書館,2001年。
- 王鏊·曾明德,《詩詞曲語辭集釋》,語文出版社,1991年。
- 王鏊,《詩詞曲語辭例釋》,中華書局(增訂本),1991年。
- ,《唐宋筆記語辭匯釋》,中華書局(增訂本),1990年。
- ,《宋元明市語匯釋》,中華書局(修訂增補本),2008年。
- 蔣禮鴻 主編《敦煌文獻語言詞典》,杭州大學出版社,1994年。
- 著《敦煌變文字義通釋》,上海古籍出版社,1997年。
- 劉昌惇,《李朝語辭典》,延世大學校出版部,2005年。
- 藍立莫 編著,《關漢卿戲曲詞典》,四川人民出版社,1993年。
- 李法白·劉鏡芙 編著,《水滸語詞詞典》,上海辭書出版社,1989年。
- 張永言 等編,《簡明古漢語字典》,四川人民出版社,1991年。
- 卜鍵 主編,《元曲百科大辭典》,學苑出版社,1991年。
- 史東,《簡明古漢語詞典》,雲南人民出版社,1985年。
- 王學奇·王靜竹 撰著,《宋金元明清曲辭通釋》,語文出版社,2002年。
- 白維國 編,《金瓶梅詞典》,中華書局,1991年。
- 李申 編,《金瓶梅方言俗語匯釋》,北京師範學院出版社,1992年。
- 譚其驤 主編,《中國歷史地圖集》,地圖出版社,1982年。
- 謝紀鋒 編纂,《虛詞話林》,黑龍江人民出版社,1992年。
- 楊樹達 著,《詞詮》,中華書局,1990年。
- 廖均英 編,《全宋詞語言詞典》,中華書局,2007年。
- 陸詹安 著,《小說詞語語彙釋》,上海錦綉文章出版社,2009年。
- 《中國俗語大辭典》,上海辭書出版社,1989年。
- 孫治平等 編主,《中國歇後語》,上海文藝出版社,1988年。
- 劉昌惇 著,《李朝語辭典》,延世大出版部,2005年。
- 박성훈 편저,《翻譯朴通事辭典》,태학사,2010年。
- 李行健 主編,《河北方言詞匯編》,商務印書館,1995年。
- 정광·양오진 역주,《노박집람역주》,태학사,2011年。

著書類

- 呂叔湘著,江藍生補,《近代漢語指代詞》,學林出版社,1985年。
- 胡安竹等編,《近代漢語研究》,商務印書館,1992年。
- 馮春田,《近代漢語語法研究》,山東教育出版社,2000年。

- 梁伍鎮,《老乞大朴通事研究》,태학사,1998年.
- 太田辰夫著 蔣紹愚、徐昌華譯,《中國語歷史文法》,北京大學出版社,1987年.
- 香坂順一著,江藍生、白維國譯,《白話語匯研究》,中華書局,1997年.
- ,植田均譯,《水滸詞匯研究(虛詞部分)》,文津出版社,1992年.
- 江藍生,《近代漢語探源》,商務印書館,2000年.
- 俞光中·植田均,《近代漢語語法研究》,學林出版社,2000年.
- 孫錫信,《近代漢語語氣詞》,語文出版社,1999年.
- 董志翹、蔡鏡浩,《中古虛詞語法例釋》,吉林教育出版社,1994年.
- 曹廣順,《近代漢語助詞》,語文出版社,1995年.
- 王雲路·方一新,《中古漢語語詞例釋》,吉林教育出版社,1992年.
- 胡竹安·楊耐思、蔣紹愚編,《近代漢語研究》,商務印書館,1992年.
- 蔣紹愚·江藍生編,《近代漢語研究(二)》,商務印書館,1999年.
- 北京大學中文系1955,1957級語言班編,《現代漢語虛詞例釋》,商務印書館,1982年.
- 房玉清著,《實用漢語語法》,北京語言學院出版社,1996年.
- 呂叔湘主編,《現代漢語八百詞》(增訂本),商務印書館,1999年.
- ,《漢語語法論文集》(增訂本),商務印書館,1984年.
- 日·青山定雄編,《中國歷代地名要覽》,臺灣:洪氏出版社,1975年.
- 蔣紹愚、曹廣順主編,《近代漢語語法史研究綜述》,商務印書館,2005年.
- ,《近代漢語研究概要》,北京大學出版社,2005年.
- 李泰洙,《老乞大四種板本語言研究》,語文出版社,2003年.
- 傅雨賢等著,《現代漢語介詞研究》,中山大學出版社,1997年.
- 魏耕原,《唐宋詩詞語詞考釋》,商務印書館,2006年.
- 郭作飛,《張協狀元詞彙研究》,巴蜀書社,2008年.
- 張美蘭,《近代漢語論稿》,江西教育出版社,2004年.
- 陳秀蘭,《敦煌變文詞彙研究》,四川民族出版社,2002年.
- 程湘清主編,《宋元明漢語研究》,山東教育出版社,1992年.
- 李嵩興等著,《元代漢語語法研究》,上海教育出版社,2009年.
- 장숙영 옮김,《번역박통사(상) 주석》,한국문화사,2008年.
- 王霞等譯註,《譯註 朴通事諺解》,學古房,2012年.

論文

楊聯陞,〈老乞大朴通事裏的語法語彙〉,《東方學志》,1955年(臺灣).

- 愼鏞權, <老乞大가 반영하는 漢語의 성격에 대하여>, 《中國語文學》 第48輯, 2006年.
- 王霞·유재원, <朴通事諺解譯註(1)>, 《中國研究》 第37卷, 2006年.
- 최재영·정윤철, <朴通事諺解譯註(2)>, 《中國語文論譯叢刊》 18輯, 2006年.
- 王霞·유재원·최재영, <朴通事諺解譯註(3)>, 《中國研究》 第40卷, 2007년.
- 王霞·유재원, <朴通事諺解譯註(4)>, 《中國研究》 第42卷, 2008年.
- 王霞·崔宰榮, <朴通事諺解譯註(5)>, 《中國語文論譯叢刊》 第23輯, 2008年.
- 姚美玲, <朴通事諺解中的元明口語與民俗>, 《西北民族研究》, 2011年 第四期.
- 拙稿, <董西廂與王西廂裏의 語氣助詞用例考>, 《中國語文論叢》 第36輯, 2008年.
- _____, <近代漢語語氣詞用例考(上)>, 《中國語文論譯叢刊》 第22輯, 2008年.
- _____, <老乞大語彙考>, 《中國語文論叢》 第39輯, 2008年.
- _____, <老乞大語彙考(二)>, 《中國學論叢》 第25輯, 2009年.
- _____, <老乞大語彙考(三)>, 《中國語文論叢》 第41輯, 2009年.
- _____, <老乞大語彙考(四)>, 《中國語文論叢》 43輯, 2009年.
- _____, <老乞大語彙考(五)>, 《中國語文論叢》 44輯, 2010年.
- _____, <老乞大語彙考(六)>, 《中國語文論譯叢叢》 27輯, 2010年.
- _____, <原本老乞大語彙詰釋(一)>, 《光州大學校 人文科學》 10輯, 2010年.
- _____, <原本老乞大語彙詰釋(二)>, 《光州大學校 人文科學》 11輯, 2011年.
- _____, <原本老乞大新註新譯(一)>, 《中國語文論叢》 47輯, 2010年.
- _____, <原本老乞大新註新譯(二)>, 《中國語文論叢》 48輯, 2011年.
- 이수진, <老乞大處置文의 把/將字研究>, 《中國學》 26輯, 2006年.
- 맹주익, <老乞大諺解 諸板本에 반영된 통사규칙 난점의 유형>, 《중국학연구》 42집.
- 맹주익, <老乞大諺解類 諸板本中'着'의 번역에 관한 연구>, 《중국연구》 제39권.
- 金美娘, <老乞大 4종판본 전치사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年.
- 鄭旭, <老乞大이 V着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年.
- 鍾煥, <民族史研究中的“他者”視角>, 《歷史研究》 2008年 第1期, 2008年.

< Abstract >

Nogeoldae (老乞大), written in nearly 20,000 words, is of two volumes which is based on the clue that Goryeo (高麗) business people coming to China for business and in the form of conversations, it describes what was happening on the way: accommodation, trade, as well as some parts about dinner party plus drinking, disease cure. Baktongsa (朴通事) was written in nearly 30000 words, one-third more than Nogeoldae (老乞大) with 3 volumes. The book, in the form of dialogues or one person narration, introduces every aspect of Chinese society, including dinner party, trade, agriculture, crafts, sue, religion, entertainment, sceneries, etc. The two books are of high value historical documents, just as the well-known professor Yang Lian Cheng (楊聯升) said, "in the point view of history, there are plenty of recordings about the customs and conventions for Yuan (元) and Qing Dynasty (清代) and also in the perspective of language study, the books are valuable historic materials about the spoken words at the end of Yuan Dynasty (元代) as well as and the beginning of Ming Dynasty (明代). From Yuan and Qing Dynasty (清代), the series of the books of Nogeoldae (老乞大) and Baktongsa (朴通事) are precious documents for studying the changing of Chinese words in Yuan (元) and Qing Dynasty (清代).

Baktongsa (朴通事) and Nogeoldae (老乞大) are both conversational text books in learning Chinese for both Goryeo (高麗) and Joseon Dynasty (朝鮮) people. With regard to the time when the author lived, there might not be confirmation, according to the words and other documents, it is approximately estimated that the admitting and compiling of the books date back to Yuan Dynasty (元代). the initial publication was during the year of 1346, in 1998, the so called original edition Nogeoldae (老乞大) was found in Korea and the Korean schoolers called it the Original Nogeoldae (原本老乞大). The present ones are chiefly of 3 kinds: Beonyeok Baktongsa (翻譯朴通事) volume 1, in 1756; Baktongsa eonhae (朴通事諺解) volume 1,2,3, in 1677; Baktongsa sinseok (朴通事新釋) (in 1765), among which Beonyeok Baktongsa (翻譯朴通事) is the edition

of Baktongsa (朴通事) but it is a pity that the book is not complete (there being only volume 1, not volume 2 and 3). However, Beonyeok Baktongsa (翻譯朴通事) is the modification done by PARK SE HAW (朴世華) and the other 12 people. The Chinese parts of Beonyeok Baktongsa (翻譯朴通事) and Baktongsaeonhae (朴通事諺解) are nearly the same except that the fewer parts are different.

Baktongsaeonhae (朴通事諺解) is a valuable, detailed explained material and is of great significance for studying Chinese language and as well as its culture and also to the well understanding of the original work. In recent years, scholars from Korea, Japan and other countries have regarded A Translation and Annotation Baktongsa (朴通事新註新譯) as a subject on the basis of former works, hoping that there will be more addition and further development to it. In addition, it is a moderate motivation to the research on and Nogeoldae (老乞大).

Key words: Baktongsa, Baktongsa eonhae, Annotation of Baktongsa, Translation of Baktongsa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6. 1. 26.	2016. 5. 30.	2016. 6. 1.	2016. 6. 17.	2016. 6. 30.